

학령전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정상아동의 조사 사용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박 정 현

학령전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정상아동의 조사 사용 비교

지도 이 익 환 교수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6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박 정 현

# 박정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년 6월 일

## 감사의 글

본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자상하게 지도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익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부족한 논문을 꼼꼼히 읽어주시고,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신 배소영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논문을 끝까지 지도해 주신 박은숙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을 완성할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신문자 교수님, 언어병리학이라는 학문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심현섭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논문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함께 해 준 진아언니, 성은이, 미경이, 정민언니, 지은언니, 성은언니, 민정언니, 재남언니, 후배 윤주, 태선 그리고 여러 선후배, 동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힘이 되어주는 나의 사랑하는 오랜 친구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실험을 위해 도움을 주시고, 참여해 주신 어린이집, 언어치료실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오랜 시간 힘든 줄도 모르고 즐겁게 참여해주었던 어린 꼬마 친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부족한 딸을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따뜻한 충고와 애정으로 힘을 주는 저의 언니와 동생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자 씀

# 차 례

국문요약 .....	1
I. 서 론 .....	4
II. 재료 및 방법 .....	12
1. 연구 대상 .....	12
2. 연구 방법 .....	15
가. 예비실험 .....	15
나. 연구절차 .....	15
3. 자료 수집 .....	19
4. 자료 분석 .....	19
5. 신뢰도 .....	20
6. 통계적 검증 .....	21
III. 결 과 .....	22
1. 조사 사용빈도 비교 .....	22
가. 자발적 발화에서의 그룹간 비교 .....	23
나. 유도과제에서의 그룹간 비교 .....	24
2. 조사 오류빈도 비교 .....	25
가. 자발적 발화에서의 그룹간 비교 .....	26
나. 유도과제에서의 그룹간 비교 .....	26
3. 오류유형별 오류빈도의 그룹간 비교 .....	28
가. 자발적 발화에서의 오류유형별 오류빈도 비교 .....	28
나. 유도과제에서의 오류유형별 오류빈도 비교 .....	29

4. 조사의 하위종류에 대한 오류유형 분석 .....	31
가. 자발적 발화에서의 조사 하위종류별 오류 분석 .....	31
나. 유도과제에서의 조사 하위종류별 오류 분석 .....	31
IV. 고 찰 .....	32
V. 결 론 .....	42
참 고 문 헌 .....	44
부록 1. 대상 아동의 생활연령, 수용 및 표현언어연령, 통합언어연령, 평균 발화길이 분포 .....	48
부록 2. 사례면담지 .....	50
부록 3. 유도그림과제 .....	52
부록 4. 자발적 발화에서 산출된 아동별 조사 사용빈도 .....	57
부록 5. 유도과제에서 산출된 아동별 조사 사용빈도 .....	58
부록 6. 자발적 발화에서 산출된 아동별 조사 오류빈도 .....	59
부록 7. 유도과제에서 산출된 아동별 조사 오류빈도 .....	60
부록 8. 자발적 발화에서의 대치 오류에 대한 오류빈도 및 오류형태 분석 .....	61
부록 9. 자발적 발화에서의 기타 오류에 대한 오류빈도 및 오류형태 분석 .....	63
부록 10. 유도과제에서의 대치 오류에 대한 오류빈도 및 오류형태 분석 .....	64
부록 11. 유도과제에서의 기타오류에 대한 오류빈도 및 생략 오류 분석 .....	66
Abstract .....	67

## 표 차 례

표 1.	대상 아동의 생활연령, 수용 및 표현언어연령, 통합언어 연령, 평균 발화길이 평균 .....	14
표 2.	그룹간 평균발화길이의 $t$ 검정 .....	14
표 3.	조사 사용빈도의 반복 측정된 이요인 분산분석 .....	23
표 4.	자발적 발화와 유도과제에서 산출된 조사 사용빈도 평균 및 표준 편차 .....	23
표 5.	자발적 발화에서 산출된 조사 사용빈도의 $t$ 검정 .....	23
표 6.	유도과제에서 산출된 조사 사용빈도의 $t$ 검정 .....	24
표 7.	조사 오류빈도의 반복 측정된 이요인 분산분석 .....	25
표 8.	자발적 발화와 유도과제에서 산출된 조사 오류빈도 평균 및 표준 편차 .....	25
표 9.	자발적 발화에서 산출된 조사 오류빈도의 $t$ 검정 .....	26
표 10.	유도과제에서 산출된 조사 오류빈도의 $t$ 검정 .....	26
표 11.	자발적 발화의 하위 오류유형별 오류빈도의 $t$ 검정 .....	28
표 12.	자발적 발화의 하위 오류유형별 오류빈도의 평균1 .....	28
표 13.	유도과제의 하위 오류유형별 오류빈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 .....	29
표 14.	유도과제에서 산출된 생략오류의 $t$ 검정 .....	29
표 15.	유도과제에서 산출된 대치오류의 $t$ 검정 .....	30

## 그림 차례

그림 1. 그룹간 조사 사용빈도의 평균 비교 .....	24
그림 2. 그룹별 오류유형에 따른 오류빈도의 평균 비교 및 상호작용효과 .....	27
그림 3. 그룹별 오류유형에 따른 오류빈도의 평균 비교 .....	30



## 국문요약

### 학령전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정상아동의 조사 사용 비교

단순언어장애아동은 문법형태소의 사용에서 생활연령이 같은 정상아동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언어연령이 같은 더 어린 아동과 비슷하거나 심지어는 언어연령이 같은 아동보다도 제한된다. 한국어의 경우 문법형태소 중 하나인 조사가 아동 언어의 발달과 지체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므로 조사 사용의 정도 및 오류는 한국어 사용 단순언어장애의 유무를 시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정상아동의 조사사용빈도와 오류빈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어 사용 단순언어장애아동도 문법형태소 사용에서 정상아동과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발적 발화와 유도과제에서 실시하였으며, 대상은 4-6세의 아동들로서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30명이었다.

조사를 사용하는 능력에서 정상아동과 차이를 보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단순언어장애아동 10명과 생활연령으로 일치시킨 정상아동 10명, 언어연령으로 일치시킨 정상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발화와 유도과제에서 조사 사용빈도와 오류빈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오류유형을 분류하고 오류유형별 오류빈도를 비교하여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정상아동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조사의 하위 종류에 따라 단순언어장애아동에서 산출된 오류형태를 분석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의 사용빈도는 자발적 발화와 유도과제 모두에서 단순언어장애그룹과 동일생활연령그룹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동일생활연령그룹이 조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단순언어장애그룹이 조사를 가장 적게 사용하였다.

2. 조사의 오류빈도는 자발적 발화와 유도과제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자발적 발화에서는 단순언어장애그룹이 동일생활연령그룹과 동일언어연령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은 오류빈도를 보였다. 유도과제에서는 동일생활연령그룹이 단순언어장애그룹과 동일언어연령그룹보다 유의하게 낮은 오류빈도를 보였다. 단순언어장애그룹이 오류를 가장 많이 보였고, 동일생활연령그룹은 거의 오류를 보이지 않았다.

3. 오류유형별 오류빈도는 자발적 발화와 유도과제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자발적 발화에서 생략은 단순언어장애그룹에서만 나타났고, 대치는 세 그룹에서 모두 나타났다. 대치에서 그룹간 차이는 단순언어장애그룹이 동일언어연령그룹과 동일생활연령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은 오류빈도를 보였다. 기타오류는 단순언어장애그룹이 동일언어연령보다 약간 높은 빈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유도과제에서 생략은 세 그룹 모두에서 나타났고, 그룹간 차이는 단순언어장애그룹과 동일생활연령그룹간, 동일언어연령그룹과 동일생활연령그룹간에 유의했다. 대치는 세 그룹 모두에서 나타났고, 그룹간 차이는 단순언어장애그룹이 동일생활연령그룹, 동일언어연령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은 오류빈도를 나타냈다.

4. 조사의 하위 종류별 오류형태는 자발적 발화와 유도과제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자발적 발화에서 주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는 생략을 나타냈고, 목적격 조사는 주격 조사로 대치한 경우가 많았다. 기타 오류유형은 주격 조사의 위치에서 '-이가' 형태가 과잉 사용되었다. 유도과제에서는 부사격 조사를 생략하거나 목적격 조사로 대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타 오류유형은 주격 조사의 위치에서 '-야가', '-이가' 형태가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단순언어장애아동이 조사 사용에서 어

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류형태에서 언어연령이 같은 어린 아동들이 흔히 보이지 않는 특이한 오류를 나타냄으로써 유사하지 않은 사용 양상을 보였다. 그러므로 임상현장에서 조사 사용능력은 단순언어장애를 선별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조사를 하위종류로 다시 세분하고, 각각의 조사에 대한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정상아동의 사용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언어장애의 전체적인 문법형태소에 대한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접사와 어미의 사용을 살펴보는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핵심이 되는 말 : 단순언어장애, 문법형태소, 조사 사용빈도, 조사 오류빈도,  
아동언어장애

# 학령전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정상아동의 조사 사용 비교

<지도교수 이익환>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박 정 현

## I. 서 론

언어 발달이 지체(delay)되거나 장애(disorder)가 있음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조사의 변화이다. 또한 우리말의 대표적인 특성을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조사는 우리말에서 기능어(function word)<sup>1)</sup>에 속하며, 이러한 기능어의 사용은 아동이 복잡한 문장 구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sup>1)</sup> 그러므로 조사는 아동의 언어 발달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언어 능력의 결함으로 인해 장애유형이 분류되는 단순언어장애아동(Specific Language Impairment)의 경우 특히 기능어, 즉 문법형태소(grammatical morpheme)의 사용에서 문제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정신지체, 청각장애, 운동장애, 사회정서적 장애,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발달언어장애(developmental language disorder)를 단순언어장애(SLI)라고 한다.<sup>2,3)</sup>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원인이 없고, 나타나는 특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SLI를 진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일반적으로 SLI는 증상의 일부분으로 언

---

1 본 논문에서는 기능어(function word)와 문법형태소(grammatical morpheme)를 동일한 의미로 간주하였다.

어장애(language disorder)를 나타내는 다른 장애들과 비교함으로써 배제 기준(exclusionary criterion)에 따라 진단(diagnosis)할 수 있다.<sup>2,3)</sup> SLI아동은 비언어성 수행능력에서는 정상 기준을 보이지만 공식적인 언어 검사를 실시했을 때 언어 이해나 사용 능력에서 결함을 나타낸다. 그리고 자발적인 언어 패턴을 관찰했을 때 인지능력에 적합하지 않게 언어를 사용한다.<sup>5,4)</sup> SLI는 다른 장애유형과 달리 특별히 동반되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SLI라는 이름으로 진단되었다 할지라도 손상의 원인은 다를 수 있고<sup>5)</sup>, 또한 손상의 심한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질적인 집단을 구성한다.<sup>6)</sup> 그리고 수용언어와 표현언어 중 한 영역만 손상될 수도 있고, 두 영역 모두 손상되기도 한다는 점에서도 이질적이라고 본다.<sup>3,8)</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SLI는 발달과정에서 언어발달이 전체적으로 지체된다는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낸다.<sup>2,3)</sup> Leonard<sup>3,9)</sup>는 언어의 습득능력(learnability) 및 전반적인 언어발달 양상과 관련하여 SLI가 정상아동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첫째 시간적인 조건으로 SLI는 처음 언어가 출현하는(emergence) 시기부터 지체되고, 출현 이후 완전히 습득(mastery)할 때까지도 정상아동의 평균적인 언어발달보다 훨씬 더 느리게 진행된다. 둘째 SLI는 일정한 습득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 안정기(plateau)가 시작됨으로써 특정한 언어 특성에 대해서는 결코 완전히 습득(mastery)할 수 없고, 심지어는 성인이 될 때까지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sup>3,6)</sup> 이러한 특징은 주목할 만한 차이점으로써 SLI가 언어발달에서 단지 지체된(delayed) 양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발달 패턴에서 벗어나 다소 상이한(deviant) 측면이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습득 패턴에 대한 측면도에서 차이(profile difference)를 보인다. SLI는 언어의 특정 요소에서 더 약화를 보이는 등 발달 분포가 고르지 않게(uneven) 나타나, 정상아동이나 발달지체 아동과는 상이한 습득 패턴(acquisition pattern)을 보이며, 평균발화길이(MLU)로 일치시킨 그룹과도 차이를 보인다. 넷째 SLI는 생활 연령이 더 어린 정상아동들이 보이는 오류유형을 나타내지만, 정상아동들보다 더 높은 오류빈도(abnormal frequency of error)를 나타낸다. 다섯째 정상아동들이 보이지 않는 매우 독특한 오류형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정상아동과 질적인 면에서 상이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오류형태는 SLI내에서도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다. Leonard의 설명은 SLI가 언어발달 과정에서 정상발달과는 다른 특이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러한 SLI의 독특한 언어적 특징은 정상아동과의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임을 시사한다.

한편, 언어의 하위 영역과 관련해서는 음운적, 구문 형태적, 어휘적인 면에서 문제를 갖는다.<sup>3,5,7,8,10</sup> 특히 구문 형태적인 측면에서 SLI가 어려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는 여러 언어권에서도 보고되고 있으며, 정상 생활연령그룹(AGE)과의 비교 연구에서 SLI가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보이는 부분이 문법형태소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MLU그룹보다도 필수적으로(obligatorily) 사용해야 하는 문맥에서 더 낮은 문법형태소 사용율(precent)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sup>11</sup> Hansson 등<sup>12</sup>은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4세 3개월에서 5세 7개월 된 아동들의 자발적인 발화(spontaneous speech)를 분석하고, SLI가 MLU그룹보다 현재시제를 나타내는 접합사(present tense copula forms)와 규칙적인 과거활용 형태에서 더 낮은 사용율을 나타냈다고 보고했다. Dormi 등<sup>13</sup>은 4세 2개월에서 6세 1개월 사이의 히브리어 사용 SLI아동을 대상으로 이야기 구성하기와 설명하기 과제를 실시한 결과 SLI가 수, 인칭, 시제의 3가지 요소를 동시에 조작해야 하는 과거시제 활용에서 MLU로 일치시킨 그룹보다 더 낮은 사용율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Vinkler<sup>3</sup>등은 헝가리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이 관사를 생략하고, 체언이나 동사에 붙는 접미사에서 실수를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Leonard<sup>14</sup>는 3세 8개월에서 5세 7개월 사이의 아동들의 자발적인 발화에서 동사활용을 포함한 기능어 전반에 대한 사용 능력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SLI가 MLU그룹보다 제한된 정도로 기능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낮은 사용율은 지정사(determiner)나 보문사(complementizer), 어미활용(inflexion) 등 기능어 전반(functional categories)에 걸쳐서 순환된다고 밝혔다. Rice 등<sup>13</sup>은 SLI와 MLU그룹의 자발적인 발화를 비교한 연구에서 SLI가 주어와 동사의 수 일치 표시에서 MLU그룹보다 더 많은 오류를 범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이런 수 일치 문제가 문맥(context)의 유형(type)에

따라서도 다른 정도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여러 국가의 SLI아동들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문법형태소의 사용에서 문제를 나타낸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이들이 문제를 보이는 문법형태소가 동일하지 않고, 언어마다 다른 종류의 문법형태소에서 문제를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SLI아동이 문제를 보이는 문법형태소는 각 국가의 언어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McNamara 등<sup>15)</sup>은 SLI가 생활연령이 같은 아동들보다 문법형태소를 사용하는 양이 적을 뿐 아니라 일관되게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적게 사용하는 이러한 경향은 복잡한 구문구조를 산출할 수 있는 시기가 될 때까지도 지속되어 생활연령(chronological)이 동일한 아동들과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AGE그룹과의 비교는 SLI가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구문형태적(morphosyntactical) 능력을 가졌음을 좀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영어 사용 SLI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비교적 오래 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 공통적으로 과거 규칙 동사 '-ed' 활용, 3인칭 단수 '-s' 활용, be동사의 활용과 같은 특정 문법형태소의 사용이 SLI와 정상아동들간의 차이를 보다 명백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간주한다. Leonard 등<sup>16)</sup>은 전체적인 어휘(lexicon) 양에 근거해서 볼 때 SLI가 정상아동보다 다른(different) 유형의 동사를 적게 사용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SLI가 한정적 용언 문법형태소(finite verb morpheme)에서 지체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보고하였다. Rice 등<sup>17)</sup>은 자발적 발화와 유도 과제에서 학령전기 SLI아동과 AGE그룹, MLU그룹의 시제 표시와 관련된 문법형태소의 사용을 비교하였다. 한편 독일어나 스웨덴어를 사용하는 SLI도 영어권 SLI와 유사하게 동사의 활용에서 오류를 보이거나 낮은 사용율을 보임으로써 용언 문법형태소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냈다.<sup>3)</sup> 독일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은 3인칭 단수 현재시제의 활용에서 영어권 아동들보다도 더 많이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17)</sup>

SLI가 특정 문법형태소에서 보다 명백하게 어려움을 보임으로써 이러한 특정 문법형태소의 사용이 임상 현장에서 SLI를 분류하는 유용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Rice 등<sup>17)</sup>의 연구에서는 SLI에게는 아직 안정적이지 않지만 생활연령이 같은 정상아동들에서는 안정된 사용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언어학적 행동을 임상적 지표(clinical marker)로 정의하면서 시제표시와 관련된 용언 문법형태소가 임상적인 지표로 사용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강조하였다. Bedore 등<sup>11)</sup>도 자발적 발화와 그림 설명하기 과제에서 수집한 SLI와 AGE그룹의 수행 결과를 판별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용언 문법형태소가 SLI와 정상아동을 가장 정확하게 분류하였다고 밝히면서 용언 문법형태소의 임상적 지표로서의 유용성을 주장하였다.

이미 SLI가 언어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문법형태소에서 문제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Leonard<sup>3)</sup>도 서로 다른 언어권간의 연구 결과에서 SLI는 자신이 속한 언어권의 특성에 따라 오류를 보이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Pinker<sup>2)</sup>에 따르면 문법형태소는 모든 언어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라 특정 언어에 대해 적절한 패러다임을 형성하면서 습득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말을 사용하는 SLI는 영어나 기타 외국어를 사용하는 SLI와는 다른 종류의 문법형태소에서 어려움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말에서 문법형태소는 조사, 어미, 접사의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sup>19)</sup> 그런데 우리말은 영어와 달리 용언 문법형태소에 해당하는 어미 활용뿐 아니라 체언 문법형태소인 조사의 쓰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조사는 주로 체언의 뒤에 붙어서 격을 표시하거나 부가적인 의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sup>19)</sup> 또한 다른 언어에서 부사나 기타 독립된 낱말로 나타내야 할 의미를 우리말에서는 조사나 어미를 사용해 나타낼 수가 있고,<sup>19)</sup> 문장 구성 요소의 자리 옮김이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충

---

2 배소영<sup>18)</sup>에서 재인용.



분히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게 한다.<sup>20)</sup>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SLI가 문법형태소에서 특히 어려움을 보인다는 국외 연구들을 참고하고, 우리말 특성을 감안하여 한국어를 사용하는 SLI가 조사를 사용하는 능력에서 어려움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우리말에서 조사의 사용은 비교적 선택적인 것이지만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조사의 생략과 실수를 자주 보이는 우리말 사용 SLI아동들은 원활한 의사소통에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sup>18)</sup> 표현하는 문장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문법형태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의미관계가 불분명하여 문장의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없기 때문이다.<sup>3</sup>

문법형태소 가운데 조사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는 비교적 이른 연령에서 출현하며<sup>20,22,23)</sup>, 특히 격조사가 보조사나 연결어미 같은 문법형태소보다 먼저 출현하고 습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sup>18)</sup> 또한 연구자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조사의 종류에 따라 습득되는 시기가 다르다는 견해에는 일치한다.<sup>18,22-24)</sup> 격조사 중에서도 ‘-이/가, -을/를, -에, -한테’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습득되고 사용되는 것으로 보고되며<sup>18,22)</sup>, ‘-이/가, -는, -을/를, -에, -한테, -로’는 언어발달과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사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선정한 조사는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격조사로서 특정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사용(obligatory)되어야 문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21)</sup> 셋째 치료 현장에서 SLI 뿐만 아니라 언어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이러한 조사에 대해 혼동하고 어려움을 보이는 모습들이 자주 관찰되기 때문이다. 특히 처소 부사격 조사 ‘에’와 ‘에서’는 구별해서 적용해야 하는 경우에 종종 오류를 보인다. 따라서 실제적인 치료활동과 관련하여 이런 조사의 연구가 가장 유용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넷째 시각화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다.<sup>21,25)</sup> 이와 같은 근거에 의거해서 유도과제를

---

3 성수진, 최재남<sup>21)</sup>에서 재인용.

구성 시에는 목표조사 '-이/가, -을/를, -에, -에서, -한테, -으로'의 사용을 필수적으로(obligatorily)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 거의 대부분이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자발적인 발화를 채택하였다. 또한 Dunn등<sup>26)</sup>은 SLI와 AGE그룹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으로 자발적인 발화가 객관적인 검사도구보다 더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임상적인 불일치 기준에 의거해서 SLI로 진단된 아동과 SLI를 갖지 않았다고 판명된 학령전기 아동을 대상으로 자발적 발화를 수집하여 구문론적, 문법형태론적 오류를 분석하고, 평균발화길이를 측정하여 공식적인 언어검사 수행 결과와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Fletcher<sup>4)</sup>도 산출연구에서는 자연스런 자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근거해서 본 연구에서도 자발적 발화를 수집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아동들이 임의적으로 조사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효과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조사를 산출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몇 가지 조사에 대해 필수적으로 산출하도록 구성된 유도과제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SLI가 조사를 사용하는 능력에서 AGE그룹이나 MLU그룹보다 어려움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리고 아직 SLI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 도구가 충분하지 못한 치료현장에서 조사의 사용능력을 살펴보는 일이 객관적인 도구의 부족한 면을 보완해 주면서 SLI와 정상아동을 분류하는 임상적인 지표로써 활용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상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에 관해 살펴보하고자 한다.

1. 조사의 사용빈도에서 SLI그룹은 동일AGE그룹, 동일언어연령그룹과 차이가 있

---

4 Bishop<sup>27)</sup>에서 재인용.

는가?

2. 조사의 오류빈도에서 SLI그룹은 동일AGE그룹, 동일언어연령그룹과 차이가 있는가?

3. 오류유형별 오류빈도에서 SLI그룹은 동일AGE그룹, 동일언어연령그룹과 차이가 있는가?

4. 오류유형을 조사의 하위종류별로 분류했을 때, SLI그룹에서 나타나는 오류 형태가 동일AGE그룹이나 동일언어연령그룹과 차이가 있는가? 만일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가?

## II. 재료 및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 참여했던 대상 아동은 총 30명이었다. 전체 아동은 실험군인 SLI 그룹과 대조군인 AGE그룹, MLU그룹의 세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각 그룹은 10명씩으로 구성하였다.

실험군은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으로 평균생활연령 73개월(5;0 - 6;11)이었다. 이들 중 8명은 개인 언어치료실에서 추천 받았으며, 2명은 일반 유치원에서 소개받았다. 10명 중 9명은 남자 아동이었고, 1명이 여자 아동이었다. 단순언어장애아동은 4가지 기준에 의해 선정하였다. (1) 우선 간략한 사례 면담지를 통해 부모나 교사에 의해 발달장애, 감각장애, 정서장애 및 행동장애, 신경학적 병력이 없다고 보고되어야 한다. (2) 이 아동들 중 연구자가 직접 관찰에서 사례 면담지에 보고된 내용을 확인하고, 구강구조 기능의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3) 인지 능력은 Korean Kauf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K-ABC)<sup>28)</sup>의 하위검사 중 비언어성척도에 해당하는 순차처리척도인 손동작 검사, 동시처리척도인 삼각형 검사에서 척도 점수가 -1SD이내면 정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 아동으로 포함하였다. (4) 언어 능력은 객관적 검사 도구 중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척도(PRES)<sup>29)</sup>검사를 실시하여 수용 및 표현언어 두 영역 모두에서 지체를 보이거나 수용언어 또는 표현언어 중 한 영역에서 언어발달연령이 생활연령보다 6개월 이상 지체를 보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였다. SLI아동 10명 중 8명은 실험 당시 이미 진단을 받고 1년 이하의 치료 경험이 있는 아동이었고, 나머지 2명은 전혀 치료 경험이 없는 아동이었다. 이와 같이 선정된 SLI아동들은 자유놀이 상황에서 산출된 150발화를 수집하였고,

낱말을 단위로 평균발화길이<sup>30)</sup>를 계산하였다.

대조군은 AGE그룹과 MLU그룹의 두 그룹으로 구성되었다. 대조군 아동의 성별 분포는 실험군과 일치시키기 위해 각 그룹은 10명 중 남자 아동 9명, 여자 아동 1명으로 구성하였다. 아동들은 서울 강서구의 어린이집 한 곳과 경기도 김포의 유치원 한 곳, 강서구의 아파트 한 곳에서 검사 후 임의로 선정하였다. 대조군 아동도 실험군 아동과 동일한 4가지 기준에 의거해 선정하였다. (1) 사례 면담지, (2) 직접 관찰 및 구강구조 이상 (3) 인지능력 검사 결과는 대조군과 동일하게 모두 정상 범위에 포함되었다. (4) 언어 능력 검사 결과에서는 대조군과 달리 지체가 없고 정상 발달 범위에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실험군 두 그룹의 모든 아동들은 언어평가 및 언어치료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AGE그룹의 평균생활연령은 72개월(5;1- 6;7)이었으며, SLI그룹과 생활연령에서 3개월 이하의 차이가 있었다. MLU그룹의 평균생활연령은 55개월(3;5- 5;1)이었으며, 놀이상황에서 수집한 자발적인 150발화에서 낱말을 단위로 평균발화길이를 계산하여  $\pm 0.3$ 이내에서 차이를 보이도록 짝을 지웠다. 또한 언어검사결과 통합언어연령이 SLI아동과 2개월 이하의 차이를 보였다.

대상 아동의 연령 평균은 표 1에 제시하였으며, 개인별 정보는 부록 1에 제시하였다. 대상 선정 요인 중 평균발화길이(MLU)가 각 그룹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다. 통계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SLI그룹과 MLU그룹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SLI그룹과 AGE그룹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1.** 대상 아동의 생활연령, 수용 및 표현언어연령, 통합언어연령<sup>1</sup>, 평균발화길이<sup>2</sup> 평균<sup>3</sup>

그룹	생활연령	수용언어연령	표현언어연령	통합언어연령	평균발화길이
SLI그룹	73±6.8	61±11.1	51±8.6	56±5.4	3.69±0.41
MLU그룹	55±6.8	58±7.0	57±8.9	58±6.4	3.68±0.47
AGE그룹	72±6.6	71±5.7	75±2.7	73±4.3	5.02±1.24

1 모든 연령은 개월 수입.

2 단위는 낱말이고 ±0.3 내에서 모든 아동들이 짝을 이룸.

3 그 값은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냄.

**표 2.** 그룹간 평균발화길이의 *t* 검정

그룹	자유도	<i>t</i>	유의도
SLI그룹-MLU그룹	18	- 0.061	0.952
MLU그룹-AGE그룹	18	- 3.203**	0.005
AGE그룹-SLI그룹	18	- 3.226**	0.005

\*\* :  $p < 0.01$

## 2. 연구 방법

### 가. 예비실험

본 실험에 들어가기에 앞서 실험도구 및 실험절차가 적절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생활 연령이 비슷한 범위에 있는 SLI아동 1명, 정상아동 1명에게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SLI아동은 자격증이 있는 1급 언어치료사에게 진단받은 남자 아동이었다. 생활 연령은 6세 7개월이었다. (1) 부모 사례 면담지에서 발달장애, 감각장애, 정서장애 및 행동장애, 신경학적 병력이 없다고 보고되었고, (2) 직접 관찰에서 사례 면담지 내용이 일치하고, 구강구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PRES검사에서 12개월 지체를 보였으며, (4) 인지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K-ABC의 비언어성숙도 검사에서 정상범주에 포함되었다. 정상아동은 생활연령이 6세 6개월인 여자 아동으로 언어검사를 제외한 다른 조건은 SLI아동과 동일하였다. 언어검사 결과 정상발달 범위 내에 포함되었다. 예비실험에서 사용된 놀이감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것과 동일하였으며, 자극 그림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자료보다 숫자가 적었고, 그림의 상황이 다소 다른 카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목표 조사는 동일하였다. 4개의 목표조사에 대해 최소한 4번씩 산출할 수 있도록 총 16장으로 구성되었다. 예비실험의 목적은 실험도구 및 실험절차의 적절성을 알아보고, 조사 사용패턴에서 실제로 아동간에 차이 유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대상 아동의 성별을 고려하지 않았다. 예비실험 결과 실험도구 및 실험절차는 적절하였고, 두 대상 아동은 조사 사용패턴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 나. 연구절차

본 연구는 동일 대상에 대해 자발적 발화와 유도그림 과제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반복 실시하였다. 자발적 발화는 전혀 구조화하지 않았고, 아동 중심으로

자유롭게 놀이를 하는 동안 산출된 발화였다. 유도그림 과제는 주격조사 '-이/가', 목적격 조사 '-을/를', 처소 부사격 조사 '-에', '-에서', 대상 부사격 조사 '-한테', 도구 부사격 조사 '-로/으로'의 산출을 유도하도록 구성되었다.

모든 실험은 연구자가 아동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대부분 1회 방문하였지만 아동의 발화량이 충분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2회 방문하였다. 자료수집은 대부분 아동의 집에서 이루어졌으나 SLI그룹 중 3명은 아동에게 이미 친숙한 장소인 언어치료실과 어린이집에서 실시하였고, AGE그룹 중 3명도 어린이 집에서 실시하였다. 실험은 집으로 직접 방문했던 경우와 집 이외의 장소에서 실시했을 때도 방해 요소를 최소화하고, 검사자와 아동이 둘이서만 참여할 수 있도록 분리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실험 시간은 각 아동마다 대략 총 2-3시간 정도가 소요되었다.

실험 과정은 우선 부모나 교사에게 사례 면담지를 작성하도록 한 후, 연구자가 사례 면담지 내용을 확인하여 대상 아동을 선택하였다. 선택한 아동들에게 언어능력과 인지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하고, 각 그룹의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아동만을 실험 대상에 포함시켜 자유놀이와 유도그림 과제를 수행하게 하였다. 자유놀이와 유도그림 과제는 제시순서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여 각 아동마다 정해진 순서없이 임의적으로 제공하였다.

#### (1) 사례 면담지

실험 시작 전에 부모님이나 아동을 담당하는 교사로부터 간략한 사례 면담지 및 참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시작하였다. 사례 면담지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사례 면담지는 아동의 개인정보, 청력이상의 유무, 사회행동문제, 신체발달문제의 유무, 언어치료의 유무 등과 관련해서 간략한 정보를 알기 위한 몇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 (2) 인지 검사

Korean Kauf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K-ABC)의 하위영역 중 삼각형과 손동작을 실시하였다. 미국판의 예비조사에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삼각형은 모든 연령 수준에서 동시처리 척도의 가장 강력한 검사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삼각형은 실시연령 대부분에 있어서 시각-운동의 협응(눈과 손의 협응)능력을 측정하기 때문에 동시처리척도에서 다른 하위검사와는 차별되는 독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검사이다. 이 과제는 시각-운동계의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인지처리능력을 측정하며 고유하게 측정하는 능력은 '비언어적 개념 형성'이다.<sup>28,31)</sup>

손동작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언어-의존적이 아닌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손동작이 측정하는 고유한 능력은 '연속적 운동자극의 운동적 재생'이다.

### (3) 취학 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척도(PRES)

PRES는 언어발달 수준이 2-6세 범위에 있는 아동들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언어검사 도구로 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아동의 언어발달 지체 여부를 판별할 수 있고,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간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sup>29)</sup> PRES는 한국어 사용 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하였고, 현재 출판 준비중이다. 검사 시작은 아동의 생활연령 범위보다 한 단계 낮은 연령 범위에서 시작하였으며, 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연구자는 모든 문항에 대해 "잘 했어요"라고 말하는 정도로 일관되게 반응함으로써 아동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수용언어 영역에 대한 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수용언어 영역에서 언어발달 연령, 기초선, 최고한계선이 설정되면, 표현언어 영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표현언어 영역에서 언어발달연령, 기초선, 최고한계선이 설정되면 검사를 끝냈다. 검사 결과는 아동마다 수용언어연령, 표현언어연령, 통합언어연령 및 각각에 대한 발달지수를 산출하여 지체여부를 판단하였다.

### (4) 유도그림 과제

자극 그림은 '-이/가(은/는), -을/를, -에, -에서, -한테, -으로'의 4가지 조사를 산출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림은 총 19장이었다. 즉 아동들은 각 조사에 대해 최소한 4번씩 산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주격조사 '-이/가'와 목적격 조사 '-을/를'은 가능한 19장 모두에서 산출기회를 제공하도록 구성하였다.

카드 크기는 가로 10cmcm cm× 세로 10cm 이고, 검정색 싸인펜으로 그리거나 복사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카드는 연속된 내용이 아니며 각각 독립된 한 장면으로 이루어졌다. 제시 시간은 약 1분 가량이며, 자극 그림은 1장씩 제시되었다. 그림 자료는 박혜원, 홍진희<sup>25)</sup> 와 배소영, 윤혜련<sup>1)</sup>의 글에서 사용했던 자료의 일부를 인용하였다. 연구자는 아동이 수행방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설명한 후 과제를 시작하였다.

- 단계 1: 그림을 보여주기 전에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림을 보여줄 텐데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한테 말해주세요. 00가 보고 있는 건 빼지 말고 자세하게 얘기해주세요. 그리고 00가 말한 건 잊어버리지 않게 선생님이 지금부터 적을게.” 라고 설명한 후, 그림을 한 장씩 임의적인 순서로 제시하였다.

- 단계 2: 만일 아동이 목표 조사를 빼고, 표현한 경우에는 “글쎄, 아직 잘 모르겠다. 선생님은 그림을 볼 수 없고 너만 볼 수 있잖아. 오빠가 야구를 어떻게 하는데? 좀더 길게 자세하게 얘기해줄래.”와 같이 말하면서 다시 설명하게 하여 목표 조사 산출을 유도하였다.

단계 2' 이후에도 아동이 말을 하지 않거나 아동의 반응이 이전과 동일하면 다음 그림 카드를 제시하였다.

#### (5) 자발적 발화

처음 5분 정도는 친밀감 형성을 위해 아동의 주변 생활이나 아동이 흥미를 보이는 대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예. 만화캐릭터, 동화책 주인공, 아동의 친구 등).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는 아동에게 비디오 촬영에 대해 잠시 설명하고 놀이를 시작하였다. 놀이시간은 각 아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보통 40분-60분 가량 소요되었고, 모든 놀이는 전혀 구조화하지 않고, 아동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장난감은 레고집놀이, 햄버거 만들기, 고무찰흙, 냉장고 4가지를 동일하게 제공하였다. 장난감의 제공 순서는 아동의 선택에 따라 무작위로 하였다.

### 3. 자료 수집

놀이 상황과 유도그림 과제의 전체 과정은 아동별로 녹화하고, 녹음하였다. 녹화된 아동의 발화는 전부 전사한 후 놀이를 시작하는 앞부분 3분 정도와 놀이를 마무리하는 뒷부분 3분 정도의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발화 중에서 완전 이해 가능한 150발화를 선택하였다. 놀이하는 동안 산출된 아동의 자발적인 발화는 외부마이크 연결없이 삼성 비디오 카메라 SV-H85를 사용하여 video recording하였다. 유도그림 과제에서 산출된 아동의 발화는 내부 마이크가 장착된 SANYO M-5799녹음기로 녹음하였고, 총 19문장이었다. 분석을 위해 19문장 모두 선택하였다. 녹음과 동시에 만일에 대비하여 연구자가 on-line으로 직접 기록하였다.

### 4. 자료 분석

완전이해 가능한 150발화는 문장단위로 분할해서 분석하였다. 발화전사 및 분석기준은 김영태<sup>30)</sup>의 발화 구분을 참고하였다. 조사 유형은 남기심... 등<sup>19)</sup>을 참고하여 8개 격조사와 접속조사, 보조사로 분류하였다.

아동의 자발적 발화는 낱말에서의 평균발화길이를 측정된 후, 오류유형을 구분하였다. 조사 오류에 대한 기준은 “성인의 구어에서 나타나지 않는 조사 사용형태<sup>32)</sup>로 정의하며, 따라서 기본 문법에서 어긋나더라도 성인이 일상적인 발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오류에 포함하지 않았다. 오류유형은 생략, 대치, 기타(이중사용, 첨가)로 분류하였다. 생략은 반드시 써야 하는 위치에서 부재한 경우이다. 대치는 격내 또는 격간에서 다른 유형으로 바뀌어서 사용한 경우이다. 첨가는 조사 결합이 허용되지 않는 위치에 불필요하게 붙어서 사용한 형태이다. 이중적 사용은 정상적인 구어체에서도 나타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두 개의 격이 다른 조사가 결합되었다 할지라도 조사의 상호결합이 허용되지 않는 위치에서 조사를 겹쳐서 사용한 경우이거나<sup>31,32)</sup> 또는 정상적인 사용형태라 할지라도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더 일찍 출현하는 형태를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본 논문에서는 오류로 정의하였다. 조사 오류에 대한 판단을 위해 연구자와 연구자 외 평가자 1인이 녹화된 아동의 발화를 직접 보고, 2명이 모두 오류로 판단한 경우에만 오류로 분류하였다. 오류의 판단 기준은 자발적 발화에서 조사가 생략됨으로써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가 모호하거나 문맥이 자연스럽지 못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생략 오류로 분류하였다. 한편 아동이 이어진 발화에서 자발적으로 수정한 경우에는 오류로 포함하지 않았다.

유도과제에서는 필수적으로 산출되어야 하는 조사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상 성인 남자 2명과 학령기 남자 아동 3명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성인 남자 2명은 대학생이었고, 학령기 아동은 초등학교 5학년으로, 충분히 문법을 습득하고 성인과 유사한 문법형태를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연령이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그림 과제를 5명에게 보여주고 실험에 참여했던 대상아동에게 수행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게 하였다. 5명 모두가 동일하게 산출한 조사들을 기준으로 하여 오류를 판정하였다. 남자를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대상아동의 성별이 대부분 남자아동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 5. 신뢰도

평가자간 신뢰도는 자료의 10%를 무선 추출<sup>33)</sup>하여 언어병리학 전공 대학원생 1명이 전사하고 분석하도록 하였다. 신뢰도는 일치된 수치를 일치된 수치와 불일치된 수치를 합한 수치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전사신뢰도는 낱말을 단위로 계산하였다. 낱말의 정의 및 문장구분은 김영태<sup>30)</sup>, 남기심 등<sup>19)</sup>의 원칙에 따랐다. 전사 신뢰도는 96%였으며, 문장구분 신뢰도는 93.3%였다. 조사 유형별 사용빈도에 대한 신뢰도는 84%였으며, 유형별 오류빈도에 대한 신뢰도는 99%였다.

## 6. 통계적 검증

자발적 발화와 유도그림 과제의 두 가지 유도 방법으로 산출된 조사의 사용빈도와 오류빈도를 검사자가 직접 계산하였다. 그리고 반복 측정된 이요인 분산분석(Repeated measure)<sup>534-36)</sup>을 통하여 사용빈도와 오류빈도에 대한 그룹간 차이와 상호작용 효과를 검정하였다. 그룹간 평균차이는  $t$  검정의 방법으로 검정하였다. 오류유형에 대한 그룹간 차이는 일요인 분산분석으로 검정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그룹에 대해서는  $t$  검정으로 비교하거나 사후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10.0)을 사용해서 처리하였다.

---

5 반복표본실험은 단일표본을 사용하여 각 처치조건마다 같은 사람들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두 실험설계 모두에서 변량분석은 표본 자료가 둘 이상의 처치조건들간의 평균차이의 증거를 제공하는지를 판정한다. 반복표본실험은 개인차가 없기 때문에 독립표본설계보다 더욱 검증력이 강한 이점이 있다.

### Ⅲ. 결 과

조사의 사용에 대한 그룹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조사의 사용빈도 평균, 오류빈도 평균 차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오류 형태를 하위 유형으로 분류할 때 하위 유형에 따라 조사 오류빈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하위 유형별 오류빈도 평균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SLI아동이 두 가지 유도방법에서 산출했던 오류유형을 조사의 하위종류에 따라 분석하고 기술하였다. 유도방법이 각 그룹의 조사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모든 결과는 자발적 발화와 유도과제로 분리해서 기술하였다.

#### 1. 조사 사용빈도 비교

반복 측정된 이요인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발적 발화와 유도과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각 그룹은 자발적 발화에서 더 많은 조사를 산출하였다. 조사 사용빈도의 그룹간 평균은 표 3에 제시하였다. 그룹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룹간 차이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자발적 발화와 유도과제로 분리해서 기술하였다. 유도방법과 그룹간의 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도방법은 각 그룹의 조사 사용빈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룹에 따라 동일한 변화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조사 사용빈도에 대한 개인별 자료는 부록 4, 부록 5에 제시하였다.

**표 3.** 조사 사용빈도의 반복 측정된 이요인 분산분석

	자유도	F	유의도
유도방법	1	180.532***	0.000
그룹	2	12.321***	0.000
유도방법×그룹	2	2.977	0.070

\*\*\*  $p < 0.001$

**표 4.** 자발적 발화와 유도과제에서 산출된 조사 사용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sup>1</sup>

유도방법	SLI그룹	MLU그룹	AGE그룹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자발적 발화	99.4±13.84	106.1±29.72	147.7±43.52
유도과제	31.3±5.96	34.3±15.97	52.0±3.61

<sup>1</sup> 단위는 '회'이고 그 값은 평균± 표준편차로 나타냄.

#### 가. 자발적 발화에서의 그룹간 비교

유의한 차이는 SLI그룹과 AGE그룹, MLU그룹과 AGE그룹간에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자발적 발화에서 산출된 조사 사용빈도의 t 검정

그룹	자유도	t	유의도
SLI그룹-MLU그룹	16	- 0.646	0.526
MLU그룹-AGE그룹	16	- 2.496**	0.004
AGE그룹-SLI그룹	16	- 3.344*	0.022

\*  $p < 0.05$     \*\*  $p < 0.01$

나. 유도과제에서의 그룹간 비교

유의한 차이는 SLI그룹과 AGE그룹, MLU그룹과 AGE그룹간에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유도과제에서 산출된 조사 사용빈도의 t 검정

그룹	자유도	t	유의도
SLI그룹-MLU그룹	18	- 0.528	0.605
MLU그룹-AGE그룹	18	- 3.237**	0.005
AGE그룹-SLI그룹	18	- 8.903***	0.000

\*\*\*  $p < 0.001$     \*\*  $p < 0.01$

각 그룹간 조사 사용빈도의 결과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자발적 발화와 유도과제에서 동일하게 SLI그룹과 AGE그룹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호작용 효과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사용빈도에 대한 각 그룹간의 변화 양상이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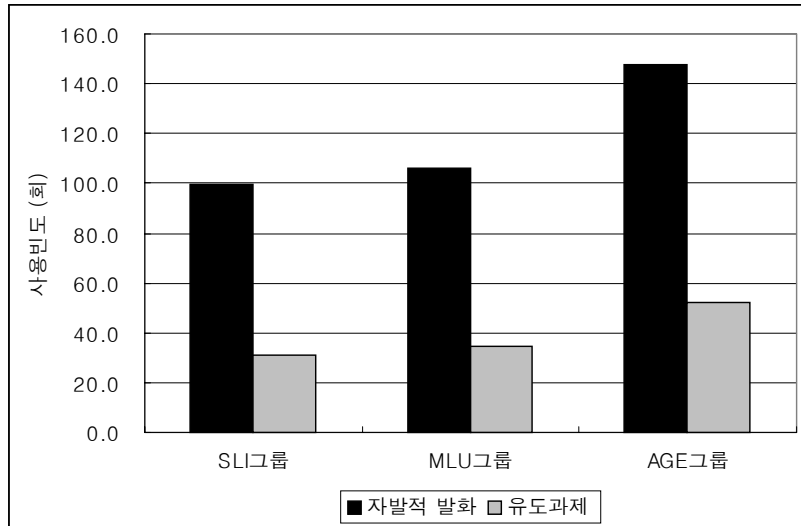


그림 1. 그룹별 조사 사용빈도의 평균 비교



## 2. 조사 오류빈도 비교

반복 측정된 이요인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발적 발화와 유도과제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그룹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룹간 차이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자발적 발화와 유도과제로 분리해서 기술하였다. 유도방법과 그룹간에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하였다. 따라서 유도방법이 각 그룹의 오류빈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그룹의 평균은 표 8에 제시하였다. 각 그룹은 전반적으로 유도과제에서 더 높은 오류빈도를 보였다. 조사 오류빈도에 대한 개인별 자료는 부록 6, 부록 7에 제시하였다.

표 7. 조사 오류빈도의 반복 측정된 이요인 분산분석

	자유도	F	유의도
유도방법	1	172.879***	0.000
그룹	2	17.388***	0.000
유도방법×그룹	2	10.105**	0.001

\*\*\*  $p < 0.001$     \*\*  $p < 0.01$

표 8. 자발적 발화와 유도과제에서 산출된 조사 오류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sup>1</sup>

유도방법	SLI그룹	MLU그룹	AGE그룹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자발적 발화	6.6±4.93	0.9±1.29	0.3±0.95
유도과제	28.9±9.25	24.9±8.58	7.3±4.24

<sup>1</sup> 단위는 '회'이고 그 값은 평균± 표준편차로 나타냄.

가. 자발적 발화에서의 그룹간 비교

유의한 차이는 SLI그룹과 AGE그룹, SLI그룹과 MLU그룹간에 나타났다. 유의수준 0.01에서 검증하였다. 자세한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 자발적 발화에서 산출된 조사 오류빈도의 *t* 검정

그룹	자유도	<i>t</i>	유의도
SLI그룹-MLU그룹	18	3.540**	0.002
MLU그룹-AGE그룹	18	1.187	0.251
AGE그룹-SLI그룹	18	3.971**	0.001

\*\*  $p < 0.01$

나. 유도과제에서의 그룹간 비교

유의한 차이는 SLI그룹과 AGE그룹, MLU그룹과 AGE그룹간에 나타났다. 유의수준 0.001에서 검증하였다. 자세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 유도과제에서 산출된 조사 오류빈도의 *t* 검정

그룹	자유도	<i>t</i>	유의도
SLI그룹-MLU그룹	16	0.951	0.356
MLU그룹-AGE그룹	16	5.503***	0.000
AGE그룹-SLI그룹	16	6.353***	0.000

\*\*\*  $p < 0.001$

조사 오류빈도에서 그룹간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2에서 볼 수 있다. 각 그룹의 오류빈도는 유도방법에 따라 상이한 변화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각 그룹간 조사 오류빈도의 결과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자발적 발화와 유도과제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그룹이 동일하지 않았는데, 이는 SLI그룹이나 AGE그룹보다 MLU그룹이 유도방법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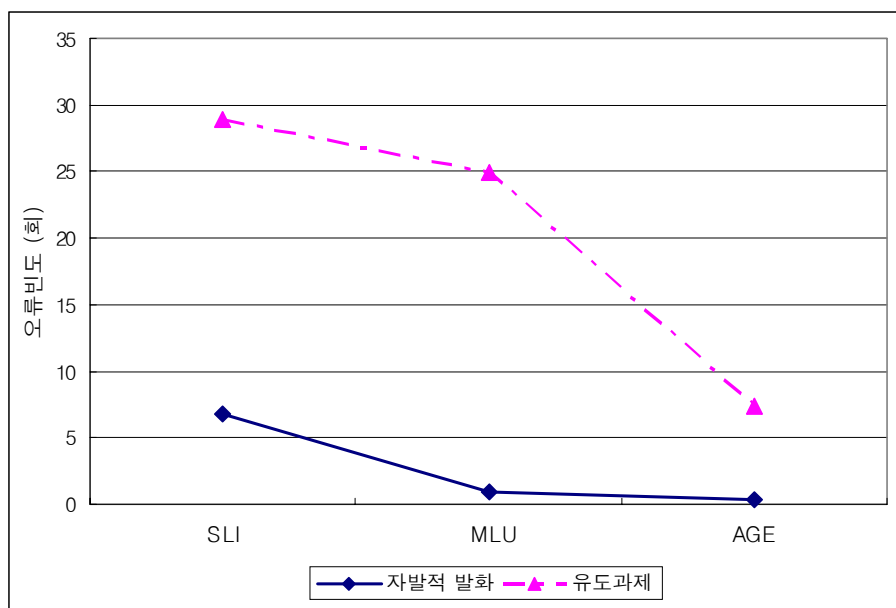


그림 2. 그룹간 조사 오류빈도의 평균 비교 및 상호작용효과

### 3. 오류유형별 오류빈도의 그룹간 비교

각 오류유형에 대한 그룹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요인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룹간 차이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자발적 발화와 유도과제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 가. 자발적 발화에서의 오류유형별 오류빈도 비교

각 그룹은 모두 대치를 나타냈고, 그룹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_{(2, 27)}=13.749, p<0.001$ ). 유의한 차이는 SLI그룹과 MLU그룹, SLI그룹과 AGE그룹간에 나타났다. 생략은 SLI그룹에서만 나타났다. 기타오류는 SLI그룹과 MLU그룹에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t=1.645, p>0.01$ ). 유의수준 0.001에서 검증하였다. 오류유형에 따른 각 그룹의 오류빈도 평균은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11. 자발적 발화에서의 하위 오류유형별 오류빈도의  $t$  검정

그룹	자유도	$t$	유의도
SLI그룹-MLU그룹	18	3.966**	0.001
MLU그룹-AGE그룹	18	-0.246	0.809
AGE그룹-SLI그룹	18	3.913**	0.001

\*\*  $p<0.01$

표 12. 자발적 발화에서의 하위 오류유형별 오류빈도의 평균<sup>1</sup>

오류유형	SLI그룹	MLU그룹	AGE그룹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생략	1.3±1.70	0	0
대치	4.1±3.14	0.5±0.97	0.6±0.84
기타	1.5±3.4	0.2±0.42	0

<sup>1</sup> 단위는 '회'이고 그 값은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냄.

### 나. 유도과제에서의 오류유형별 오류빈도 비교

각 그룹은 모두 생략과 대치를 나타냈다. 오류유형에 따른 각 그룹의 오류 빈도 평균은 표 10에 제시하였다. 생략에 대한 그룹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_{(2,24)}=11.452, p<0.001$ ). 유의한 차이는 SLI그룹과 AGE그룹, MLU그룹과 AGE 그룹간에 나타났다. 대치에 대한 그룹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_{(2,24)}=119.107, p<0.001$ ). 유의한 차이는 SLI그룹과 MLU그룹, SLI그룹과 AGE그룹간에 나타났다. 유의수준 0.001에서 검증하였다.

표 13. 유도과제에서의 하위 오류유형별 오류빈도의 평균 및 표준편차<sup>1</sup>

오류유형	SLI그룹	MLU그룹	AGE그룹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생략	21±7.7	22±8.2	7.7±4.5
대치	32±7.5	3.0±2.4	2.2±1.5
기타	0	0	0

<sup>1</sup> 단위는 '회'이고 그 값은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냄.

표 14. 유도과제에서 산출된 생략오류의  $t$  검정

그룹	자유도	$t$	유의도
SLI그룹-MLU그룹	16	-0.149	0.884
MLU그룹-AGE그룹	16	4.466***	0.000
AGE그룹-SLI그룹	16	4.500***	0.000

\*\*\*  $p<0.001$

표 15. 유도과제에서 산출된 대치오류의 t 검정

그룹	자유도	t	유의도
SLI그룹-MLU그룹	16	10.953***	0.000
MLU그룹-AGE그룹	16	0.828	0.420
AGE그룹-SLI그룹	16	11.581***	0.000

\*\*\*  $p < 0.001$

오류유형에 따른 오류빈도의 결과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자발적 발화와 유도과제 모두에서 대치가 각 그룹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SLI그룹이 MLU그룹이나 AGE그룹보다 현격하게 높은 오류빈도를 나타냈다. 한편, 오류유형에 따라 장애그룹과 정상그룹에서 오류를 보이는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SLI그룹은 생략보다 대치에서 높은 오류빈도를 보이지만 MLU그룹과 AGE그룹은 대치보다 생략에서 높은 오류빈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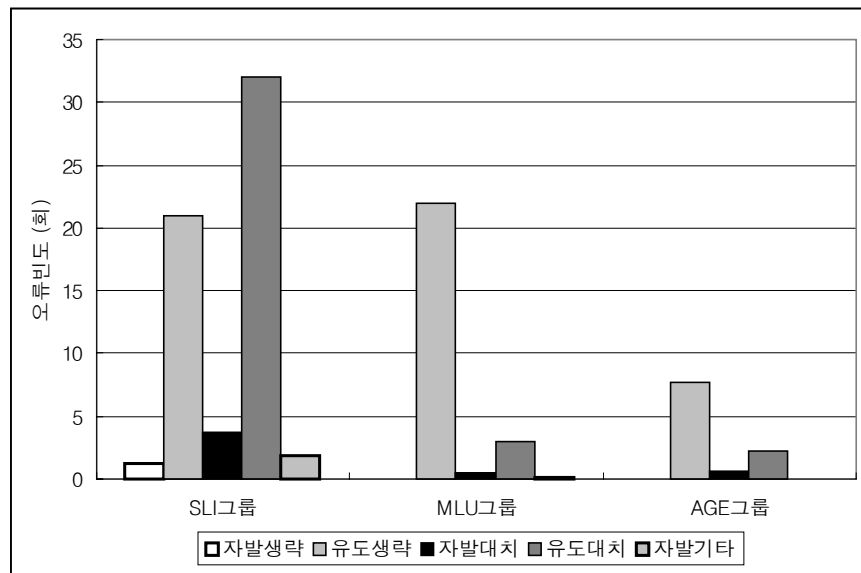


그림 3. 그룹별 오류유형에 따른 오류빈도의 평균 비교

## 4. 조사의 하위 종류에 대한 오류유형 분석

SLI그룹의 오류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의 하위 종류에 따라 오류형태를 분류하였다. 결과는 자발적 발화와 유도과제로 분리해서 기술하였다.

### 가. 자발적 발화에서의 조사 하위 종류별 오류 분석

주격 조사의 생략은 SLI그룹에서만 나타났다. 목적격 조사 '-을/를'을 주격 조사 '-이/가', 보조사의 주격형태 '-은/는'으로 대치한 오류는 SLI그룹에서 나타났고, 부사격 조사로 대치한 오류는 MLU그룹에서 나타났다. 부사격 조사의 생략은 SLI그룹에서만 나타났다. AGE그룹은 조사에 따라 각각 다른 격으로 대치하였다. 대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8, 부록 9에 아동별로 제시하였다. 기타 오류유형은 주격 조사의 위치에서 '-이가' 라는 주격 조사의 중복된 사용이 SLI그룹에서만 나타났다.

### 나. 유도과제에서의 조사 하위 종류별 오류 분석

자세한 내용은 부록 10, 부록 11에 아동별로 제시하였다. 부사격 조사의 생략이 SLI그룹과 MLU그룹에서 비교적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부사격 조사를 목적격 조사 '-을/를'로 대치한 오류가 세 그룹 모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기타 유형은 주격 조사의 위치에서 서술격 조사와 주격 조사의 결합형태인 '-야가'가 SLI그룹에서만 나타났다(예. 냄비야가 물을 받고 있어요, 수건야가 얼굴 닦으구 있어요). 또한 접속조사 '-와' 를 목적격 조사 '-를'로 대치한 경우가 있었다. 목적격 조사 '를'과 처소 부사격 조사 '-에'는 MLU그룹에서 조사 이외에 '-갖구'로 대치하였다(예. 종이 갖구 찢르구 있어, 빵 갖구 케첩 발러). 도구 부사격 조사 '-(으)로'는 AGE그룹에서 조사 이외에 '-갖다', '-갖구(가지구)'로 대치하였다(예. 청소기 갖다).

## IV. 고찰

본 연구는 SLI아동, 언어연령이 같은 정상아동, 생활연령이 같은 정상아동간에 조사의 사용빈도와 오류빈도를 비교하고, 오류형태를 살펴봄으로써 조사 사용능력에서 SLI아동과 정상아동간에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기술하고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의 사용빈도에서 SLI그룹이 조사를 가장 적게 사용하고, AGE그룹이 조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순서대로 보면 AGE그룹이 가장 높은 빈도로 조사를 사용하였고,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MLU그룹, SLI그룹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언어권의 연구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Oetting 등<sup>34)</sup>은 SLI그룹과 MLU그룹, AGE그룹을 비교한 연구에서 SLI그룹은 용언 문법형태소의 사용에서 MLU그룹과 유사한 정도의 사용을 보였다고 밝혔다. Fletcher 등<sup>11)</sup>도 용언 문법형태소와 관련한 시제 표시, 보조동사 활용형태, 어휘동사의 사용에서 SLI가 낮은 사용빈도를 보였다고 하면서, 낮은 사용빈도는 정상그룹으로부터 SLI를 가장 정확하게 분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Rice 등<sup>38)</sup>의 연구에서는 동사의 시제 변화와 수 일치를 정확하게 사용한 빈도를 SLI그룹, MLU그룹, AGE그룹간에 비교하고, SLI가 용언 문법형태소 활용에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선행연구들이 주로 용언 문법형태소의 사용과 관련해서 살펴보았던 반면, 본 연구는 체언 문법형태소인 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는 영어와 달리 한국어는 조사의 종류가 다양하고 의미전달을 위해 문장에서 조사가 담당하는 역할이 중요하다는 언어적 특성에 기인한다. 또한 지각의 현저성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영어보다 문법형태소가 더 잘 지각되며, 특히 격조사가 잘 지각되기 때문이다.<sup>24)</sup> 연구대상으로 삼은 문법형태소에 다소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SLI에 관한 국외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정 과제에서 SLI그룹과 MLU그룹, AGE그룹간의 산출빈도를 비교했던 Oetting 등<sup>33)</sup>의 연구도 SLI그룹이 AGE그룹보다 적은 빈도를 보여 차이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한편, 대명사의 격변화 활용과 관련해서 살펴본 Leob 등<sup>39)</sup>의 연구도 SLI그룹이 MLU그룹보다 더 적은 빈도로 격변화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영어는 우리말과 같이 문법형태소를 통해 격변화가 시도되지 않지만, 문장 내에서 단어의 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조사의 역할임을 감안하여 서로 연결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영어 사용 SLI아동에서 격변화가 취약한 언어영역의 일부<sup>39)</sup>임이 증명된다면 한국어 사용 SLI가 조사 사용에서 오류를 보이는 현상은 단순히 문법형태소의 활용에 대한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격변화의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빈도 양상에서 나타난 그룹간의 순서는 자발적 발화와 유도과제에서 모두 동일하였는데, 자발적 발화는 전체적인 산출량이 많고, 유도과제는 산출되는 발화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발적 발화에서 조사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그룹간의 조사 사용빈도 변화가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는 결과는 SLI그룹과 정상그룹 모두 조사산출에서 유도방법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SLI그룹이 자발적 발화와 유도과제에서 일관적으로 가장 적은 사용빈도를 보였다는 사실은 조사 사용능력에서 SLI그룹이 명백하게 제약을 받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 볼 수 있겠다.

한국어에서 조사 사용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정상아동의 수행 수준에 비추어 장애 그룹의 사용 수준을 비교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상그룹간의 비교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정상아동의 조사 사용에 관한 연구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공통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배소영<sup>18)</sup>은 조사 이해에 관한 연구의 예비실험으로 정상아동들의 자발적 발화

에서 조사의 사용빈도를 관찰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용하는 조사의 양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혜석<sup>40)</sup>도 학령전기에 있는 정상아동들의 경우 자발적인 발화에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문법형태소의 출현횟수가 증가하고, 또한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경훈 등<sup>32)</sup>은 이야기 회상과제에서 조사의 산출율을 살펴보았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정상그룹인 AGE그룹과 MLU그룹의 결과만을 살펴보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조사의 사용이 증가하였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SLI그룹은 정상발달에 관한 이러한 연구결과와 달리 AGE그룹보다 낮은 사용빈도를 보임으로써 연령에 적합하지 않은 사용능력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배소영<sup>23)</sup>은 이야기 산출 능력 연구에서 문장 구조의 습득과 관련하여 결과의 일부로 조사 사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용하는 조사의 종류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정상아동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다양한 조사를 구사함으로써 양적인 증가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발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적인 측면만을 비교하였으나 구체적인 조사의 하위 종류에 따라 사용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질적인 측면에서의 비교를 실시하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조사의 오류빈도에 대한 그룹간 차이는 자발적 발화와 유도과제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자발적 발화에서는 SLI그룹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AGE그룹, MLU그룹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순서대로 보면 SLI그룹이 가장 높은 오류빈도를 보였고, MLU그룹, AGE그룹 순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고 있다. Rice 등<sup>17)</sup>은 2개의 필수적인 문맥에서 문법형태소의 오류빈도를 측정한 결과 SLI그룹이 MLU그룹보다 모든 문맥에서 대략 2배 정도 많은 오류빈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Winsor 등<sup>41)</sup>은 학령전기에 SLI로

진단되었던 학령기 아동의 경우 언어연령그룹보다 용언 문법형태소의 활용에서 여전히 높은 오류빈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Dunn 등<sup>26)</sup>도 자발적인 발화에서 SLI아동이 구문구조를 비롯하여 다른 전반적인 언어영역에서 MLU그룹이나 객관적 검사로 일치시킨 정상아동보다 더 높은 오류율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한편 유도과제에서는 SLI그룹과 MLU그룹간에 비슷한 정도의 오류빈도를 나타냈으나 AGE그룹은 상대적으로 적은 오류빈도를 보여 SLI그룹, MLU그룹과 차이를 보였다. 연령이 어린 MLU그룹보다도 SLI그룹이 현격하게 많은 오류를 보인다는 결과는 MLU그룹과 유사한 사용빈도를 보였다는 결과와 더불어서 SLI그룹이 조사 사용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다 명백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로 생각된다.

두 가지 유도방법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SLI그룹과 AGE그룹은 유도방법에 관계없이 일관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MLU그룹은 유도방법의 변화에 따라 오류를 범하는 정도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SLI그룹은 AGE그룹보다는 분명히 조사를 적절하게 선택하고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유도방법에 따라 변화를 보이는 MLU그룹의 결과는 습득에 대한 견해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Slobin<sup>18)</sup>에 따르면 아동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만 표현하도록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자발적 발화에서 아동들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임의적으로 조사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도과제의 경우 반드시 특정 조사가 들어가야 할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일 특정 조사의 쓰임을 충분히 습득하고 있지 못하면 적합한 조사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들은 필수적으로 조사를 사용해야 하는 문맥에서 더 많은 오류를 보일 수밖에 없고, 더구나 아직 충분한 이해가 확립되지 않은 MLU그룹은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면, 홍경훈 등<sup>32)</sup>의 연구는 연

령이 증가할수록 오류율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오류빈도로 측정하였고, 완전한 자발적 발화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들의 연구와 다소 방법적인 차이가 있지만, 정상그룹에서의 결과만을 살펴본다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오류가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유도과제에서 사용했던 동일 과제를 정상 학령기 아동과 성인에게 실시했을 때 예상문장과 동일한 형태의 문장을 산출하였으며, 오류로 판정될 만한 형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정상아동에서 연령에 따라 오류빈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SLI그룹이 조사의 사용에서 가장 낮은 사용빈도를 보였고, 반대로 오류에서는 가장 높은 오류빈도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오류빈도에서는 연령이 어린 MLU그룹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들은 한국어 사용 SLI아동이 정상아동보다 조사를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적절하게 조사를 적용함에 있어서 명백하게 어려움을 가진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라고 생각된다.

오류유형별로 살펴본 오류빈도는 자발적 발화와 유도과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자발적 발화의 결과를 살펴보면, 오류유형 중 생략은 SLI그룹에서만 나타났기 때문에 통계적인 검증을 실시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대체로 MLU그룹과 유사한 오류빈도를 보이던 SLI그룹이 MLU그룹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오류형태를 보인다는 사실은 SLI가 언어발달에서 단순히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 발달패턴에서 벗어난 약간 다른 이질적인 형태를 띤다는 Leonard<sup>3)</sup>의 설명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생략이 주요한 오류형태로 나타났다는 외국의 연구결과와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영어권 아동들의 경우 주로 생략이 특징적인 오류로 설명되고 있다. Rice 등<sup>42)</sup>의 연구에서는 문법형태소에 대한 주요한 오류형태가 생략이었다고 보고하였다. Oetting<sup>37)</sup>등의 연구는 SLI그룹이 필수적인 문맥에서 문법형태소를

생략하는 오류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Evans<sup>6)</sup>의 연구에서도 SLI를 수용언어 능력과 표현언어 능력에 따라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두 하위 그룹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오류형태는 생략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대명사와 관사의 사용에 대해 SLI와 MLU그룹을 비교했던 McGregor<sup>43)</sup>등의 연구에서도 두 그룹 모두 다른 명사로 대치하기보다는 기능어 자체를 생략한 경우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 히브리어 사용 아동을 대상으로 한 Hansson 등<sup>12)</sup>의 연구, 이태리어와 영어 사용 아동을 비교한 Bortolini 등<sup>44)</sup>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용언 문법형태소의 사용을 관찰했다는 점이다.

한편, Bishop<sup>27)</sup>은 용언 문법형태소의 활용에서는 생략이 나타났지만, 대명사의 격표지에서는 주격을 목적격으로 산출하는 오류를 보였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Leob<sup>39)</sup>등의 연구에서도 대명사의 격변화에서는 주로 대치 형태의 오류를 보인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말 조사에 대한 홍경훈 등<sup>32)</sup>의 연구에서는 정상아동의 경우 서로 다른 연령간에 대치오류가 가장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정상 그룹간의 결과만 비교한다면 이들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아동들은 주로 격조사에서 대치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말에서 격조사는 체언에 대해 격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영어의 명사는 격을 표시하는 어형 변화가 없고 대신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그 기능을 대신한다.<sup>45)</sup> 그러므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아동들은 통사적인 지식과 관련해서 조사를 완전히 생략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조사의 쓰임이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사를 선택하는데서 어려움을 느껴 다른 종류의 조사를 대신 적용하는 오류를 보이게 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 참여했던 SLI그룹도 생략오류를 나타내기는 했으나 빈도가 매우 적었기 때문에 SLI를 구별하는데 별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대치는 세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산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빈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어서 그룹간 비교를 통해 SLI와 정상아동을 구별하기 위한 지표로 보다 적절하다고 생

각된다.

유도과제에서는 생략, 대치의 2가지 오류유형이 모두 나타났는데, 생략과 대치 모두에서 SLI그룹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치에서는 SLI그룹이 MLU 그룹, AGE그룹 모두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생략은 SLI그룹과 AGE 그룹간에만 차이가 나타나, 생략은 연령이 어린 정상아동들도 범할 수 있는 오류라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발적 발화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도과제에서도 SLI그룹과 정상그룹을 구분할 때, 오류유형 중 대치가 가장 유용할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발적 발화에서와 달리 유도과제에서는 정상그룹에서도 생략이 나타났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말 구어체에서 어떤 조사들은 문맥에 따라 생략되거나 전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sup>46)</sup> 실제로 구어체에서 주격이나 목적격 조사가 흔히 문장 내에서 생략된 채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sup>46,47)</sup>, 바로 이러한 영향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도과제는 구어체문장이 아니며, 유도과제 수행결과를 분석할 때 정상성인과 학령기 아동이 동일한 과제에 대해 산출했던 문장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구어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생략<sup>6)</sup> 일지라도 기준 문장에서 정확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생략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생략빈도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GE그룹은 비교적 적은 빈도를 나타내 학령기 아동의 조사 사용 수준에 근접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SLI그룹과 MLU그룹은 거의 비슷한 정도의 오류빈도를 보여 SLI그룹이 지체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조사의 하위 종류에 따라 살펴본 오류형태는 자발적 발화와 유도과제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자발적 발화에서 살펴보면, 주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에서 생략을 보였다. 다음과 같은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미야 나 아빠 친구

---

6 구어체의 특성은 화자와 청자가 일정한 시·공간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으며, 화자의 발화 그 순간에 청자가 그것을 듣는 대화 형태이다. 또한 화자와 청자가 서로의 의식 속에 다 명확하게 부각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화된다.<sup>47)</sup>

테 간다(미미야 나랄 아빠는 친구한테 간다)와 같은 문장의 경우 아빠인 ‘내’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말인지 나와 아빠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는 말인지 의미가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전후 문맥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그다지 쉽지 않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언니 자기 너꺼두 타오라구 그래떠(언니 간 자기랄 너꺼두 사오라구 그랬어)’의 문장에서는 다행히 공존격 조사 ‘-도’가 나타나 전후 문맥과 함께 관련하여 내용을 좀더 쉽게 추측하도록 도와준다.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주어로 두 개의 명사가 허용되기 때문에 만일 명사가 연속해서 여러 개 나오는 문장의 경우에 조사가 생략되면, 듣는 사람은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 부사격 조사의 생략은 ‘지금 왕십이 12 드어 갔습니다(시계의 큰 바늘이 숫자 12에 갔다는 의미이다)’에서 나타났다. 이 문장은 어휘사용도 적절하지 않은 상태인데 조사까지 생략되어 문맥에 의존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이 SLI가 보이는 생략은 일반적으로 구어체에서 나타나는 생략과 달리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오류빈도가 높다는 것은 불완전한 형태의 문장이 많이 산출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더불어서 원할한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주격 조사와 부사격 조사는 발달과정에서 이른 연령에 출현하는 조사<sup>24,48)</sup>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오류는 SLI그룹이 조사 사용에서 지체되어 있음을 의심하게 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대치는 목적격 조사에서 나타났으며, SLI그룹과 MLU그룹에서 동일하였다. 그러나 대치된 조사는 서로 달라서 SLI그룹은 주로 주격 조사로 대치하였고, MLU그룹은 부사격 조사로 대치하였다. 이는 Leob<sup>39)</sup>등의 연구에서 보고했던 영어권 SLI아동들이 주로 주격을 목적격으로 대치한 형태와는 반대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영어권 아동과 동일하게 주격과 목적격의 격변화 활용에서 대치 오류를 보이고 있었다.

유도과제에서는 부사격 조사에서 세 그룹이 모두 대치를 보였으나 각각 다른 격조사로 대치하였다. SLI그룹은 주격 조사로 대치하였고, MLU그룹과

AGE그룹은 모두 동일하게 목적격 조사로 대치하였다. 이정민<sup>49)</sup>에 따르면 우리말에서 1세 후반부터 2세 중반까지의 정상아동들도 주격 조사 대치현상을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그 이유로 조사의 지각적 현저성이 다르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목적격과 처소격, 동반격 등의 조사를 주격으로 대치하는 오류는 주격 조사가 지각적으로 가장 현저한(salient)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승복<sup>24)</sup>도 2세 경에 주격 조사의 과잉일반화 현상이 나타났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SLI아동에서 보이는 주격 조사로의 대치현상은 이들이 지체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그룹이 부사격 조사에서만 오류를 보이는 현상은 부사격 조사가 가장 변별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부사격 조사는 종류와 쓰임이 다양할 뿐 아니라, 특정 위치에서 특정 조사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문맥(obligaory context)에서는 더 많은 오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서 SLI그룹과 정상그룹에서 모두 오류를 보이지만 대치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두 그룹을 구분하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여진다. 물론 이러한 점은 조사의 하위종류 각각에 대해 좀더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특히 부사격 조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이후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처소 부사격 조사 '-에'의 경우 의미가 제한적이고<sup>46)</sup>, 임상 현장에서 아동들이 비교적 실수를 많이 보이는 조사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기타유형은 자발적 발화와 유도과제 모두에서 유사하였는데, SLI그룹에서 주격 조사의 과잉 사용이 나타났다. 자발적 발화에서는 주격 조사의 위치에서 '-이가'의 이중사용이 자주 나타났으며, 부사와 주격 조사의 결합 형태도 산출되었다. 유도과제에서는 SLI그룹에서만 주격 조사의 위치에서 '-이가/-야가'의 이중사용 형태가 특이하게 나타났다. 이정민<sup>49)</sup>은 어린 정상아동들도 호격의 '-야'를 조사가 아닌 명사의 어근(noun stem)처럼 하나의 "덩이(chunk)'로 사용(예. 파리아 어땀어? 파리아가 가버렸어)함으로써 성인어에서 나타나지



않는 오류형태를 보인다고 하였다. 홍경훈<sup>28)</sup>등도 주격 조사 '-이가'의 사용이 어린 정상아동에서도 많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SLI그룹에서 산출한 '-이가/야가' 형태는 지나치게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고, 아동들의 연령이 이집민에서 정상적인 형태로 나타난다고 밝힌 연령보다 훨씬 낮은 연령에 있었다. 그러므로 오류형태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용 빈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SLI아동들도 조사의 적절한 사용에서 정상 생활연령 또래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언어 연령이 같고 더 어린 아동들의 사용과 유사한 부분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상이한 사용 양상을 나타낸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임상현장에서 SLI아동의 조사 사용 능력을 살펴보는 일이 SLI를 선별하기 위한 지표로써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더불어서 자발적인 발화에서 살펴보는 것이 다양한 사용과 오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치료의 시작점을 확립하는데도 도움이 되리라 보여진다.

본 연구는 한 번의 접촉으로 아동의 자료를 수집했다는 방법적인 제한점이 있었다. 또한 SLI의 하위 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조사의 하위 종류에 따라 사용 정도를 좀더 자세하게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조사의 습득에서 동사와의 관계나 우리말 자음, 모음의 음향학적 특징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작업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용언 문법형태소인 연결어미의 시제나 활용 등에 관한 연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 단순언어장애아동 10명, 생활연령으로 일치시킨 정상아동 10명, 언어연령으로 일치시킨 정상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발화와 유도과제에서 조사의 사용빈도와 오류빈도, 오류유형별 오류빈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조사의 하위종류별 오류형태를 살펴보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의 사용빈도는 자발적 발화와 유도과제 모두에서 단순언어장애그룹과 동일생활연령그룹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조사의 오류빈도는 자발적 발화와 유도과제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자발적 발화에서는 단순언어장애그룹이 동일생활연령그룹과 동일언어연령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은 오류빈도를 보였다. 유도과제에서는 단순언어장애그룹과 동일생활연령그룹, 동일언어연령그룹과 동일생활연령그룹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오류유형별 오류빈도는 자발적 발화와 유도과제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자발적 발화에서 생략은 단순언어장애그룹에서만 나타났고, 대치는 세 그룹에서 모두 나타났다. 대치는 단순언어장애그룹이 동일언어연령그룹과 동일생활연령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은 오류빈도를 보였다. 유도과제에서 생략은 단순언어장애그룹과 동일생활연령그룹간, 동일언어연령그룹과 동일생활연령그룹간에 유의했다. 대치는 단순언어장애그룹이 동일생활연령그룹, 동일언어연령그룹보다 유의하게 높은 오류빈도를 나타냈다.

넷째, 조사의 하위종류별 오류형태는 자발적 발화와 유도과제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자발적 발화에서 주격 조사의 생략은 단순언어장애그룹에서만 나타났다. 목적격 조사는 단순언어장애그룹에서 주격 조사로 대치하였고, 동일언어연령그룹에서는 부사격 조사로 대치하였다. 부사격 조사는 단순언어장애그룹에서 생략을 보였다. 동일생활연령그룹은 조사에 따라 각각 다른 격으로 대치를 하였다. 기타오류유형은 단순언어장애그룹에서만 특이하게 주격 조사의 위치에서 '-이가'형태가 나타났다. 유도과제에서는 부사격 조사의 생략이 단순언어장애그룹과 동일언어연령그룹에서 많았고, 동일생활연령그룹은 생략이 없었다. 부사격 조사를 목적격

조사로 대치하는 경우는 세 그룹 모두에서 나타났다. 기타 오류유형은 주격 조사의 위치에서 '-야가', '-이가' 형태가 단순언어장애그룹에서만 특이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를 사용하는 단순언어장애아동이 조사 사용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류형태에서 언어연령이 같은 어린 아동들이 흔히 보이지 않는 특이한 오류를 나타냄으로써 유사하지 않은 사용 양상을 보였다. 그러므로 임상현장에서 조사 사용능력은 단순언어장애를 선별하기 위한 기초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후속연구에서는 조사를 하위종류로 다시 세분하고, 각각의 조사에 대한 단순언어장애아동과 정상아동의 사용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순언어장애의 전체적인 문법형태소에 대한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접사와 어미의 사용을 살펴보는 연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배소영, 윤희련. 문장만들기 지도. In: 한국언어병리학회. 언어 장애 아동의 가정 지도. 제 1 판. 서울: 군자출판사; 1994. p155-178.
- 2) Plante E. Criteria for SLI: The Stark and Tallal Legacy and Beyond. J Speech Lang Hear Res 1998;41:951-957.
- 3) Leonard LB.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London: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98.
- 4) 김화수. 단순언어장애. In: 한국언어병리학회. 언어치료전문요원교육. 서울: 한학사; 1995. p.147-167.
- 5) Hoff E, 이현진, 박영신, 김혜리. 언어발달. 2nd ed.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1. p.409-419.
- 6) Evans JL. SLI Subgroups: Interaction between discourse constraints and morphosyntactic deficits. J Speech Language Hear Res 1996;39:655-660.
- 7) Owens, R. Language Disorders : A functional approach to assessment and intervention, 3rd ed. New York: A Viacom Company; 1999. p317-324.
- 8) 제현순. 단순언어장애의 사례연구. In: 제4회 학술대회 발표모음집.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서울: 한학문화; 1999. p.51-59.
- 9) Leonard LB. Language Learnability and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in children. Applied Psycholinguistics 1989;10:179-202.
- 10) Bedore LM, Leonard LB.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and grammatical morphology: A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J Speech Lang Hear Res 1998;41:1185-1192.
- 11) Bedore LM, Leonard LB.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and grammatical morphology: A discriminant function analysis. J Speech Lang Hear Res 1998;41:1185-1192.
- 12) Hansson K, Nettelbladt U, Leonard LB.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in

Swedish: The status of verb morphology and word order. J Speech Lang Hear Res 2000;43:848-864.

- 13) Dromi E, Leonard LB, Adam G, Zadunaisky-Ehrlich S. Verb agreement morphology in Hebrew-speaking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 Speech Lang Hear Res 1999;42:1414-1431.
- 14) Leonard LB. Functional categories in the grammars of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 Speech Hear Res 1995;38:1270-1283.
- 15) McNamara M, Carter A, McIntosh B, Gerken L. Sensitivity to grammatical morphemes in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 Speech Lang Hear Res 1998;41:1147-1157.
- 16) Leonard LB, Miller C, Gerber E. Grammatical Morphology and the lexicon in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 Speech Lang Hear Res 1999;42:678-689.
- 17) Rice ML, Janna B. Oetting. Morphological deficit of children with SLI: Evaluation of number marking and agreement. J Speech Lang Hear Res 1993;36:1249-1257.
- 18) 배소영. 한국아동의 문법형태소 습득에 관한 연구: 조사 “가, 이, 는, 도, 를”. 언어청각장애연구 1997;2:27-42.
- 19) 남기심,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서울: 탑출판사; 1993.
- 20) 홍진희. 언어장애아동의 낱말 조합 구성과 문법 요소 사용에 관한 사례 연구. 서울: 글모음집 1997;1:37-47.
- 21) 성수진, 최재남. 문법형태소의 이해 및 표현 촉진을 위한 치료도구의 이용 실태. 서울: 글모음집 1997;2:29-47.
- 22) 조명환. 한국아동의 언어 획득 연구: 책략모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사; 1982.
- 23) 배소영. 한국 아동의 이야기 산출 연구 (I). 말-언어장애연구 1996;1:34-67.
- 24) 이승복. 어린이를 위한 언어획득과 발달. 서울: 정민사, 1994.
- 25) 박혜원. 홍진희. 주어/ 부사어/ 목적어/ 서술어 구조의 이해 및 표현을 위

한 문장 목록과 그림자료 : 조사사용의 측면에서. 글모음집 1997;2:49-58.

- 26) Dunn M, Flex J, Sliwinski M, Aram D. The Use of Spontaneous Language Measures as Criteria for Identifying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an Attempt to Reconcile Clinical and Research Incongruence. J Speech Lang Hear Res 1996;39:643-654.
- 27) Bishop. Grammatical errors in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competence or performance limitation?. Applied Psycholinguistics 1994;15:507-550.
- 28) 문수백, 변창진. Korean Kauffman Assessment Battery for Children. 서울: 학지사; 1997.
- 29) 김영태.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척도. 서울: 한솔교육; 2000.
- 30) 김영태. 한국 2-4세 아동의 발화길이에 관한 기초연구. 말-언어장애연구 1997;2:5-26.
- 31) 임동선. 한국어-영어 이중언어사용아동의 품사별 오류유형 분석[석사학위 청구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2001.
- 32) 홍경훈, 김영태, 양수진. 이야기회상과제에 나타난 아동의 조사사용 특성분석. In: 한국어언어병리학회. 언어장애-청각장애의 다학문적 접근. 서울: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2000. p175-181.
- 33) Oetting JB, Rice ML. Plural acquisition in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 Speech Lang Hear Res 1993;36:1236-1248.
- 34) 송인섭. 통계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1994.
- 35) 노형진. 다변량 데이터의 통계분석. 서울: 석정, 1999.
- 36) 이영준. 분산분석의 이해. 서울: 석정, 2000.
- 37) Oetting JB, Horohov JE. Past-Tense Marking by Children With and Without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 Speech Lang Hear Res 1997;40:62-74
- 38) Rice ML, Wexler K, Clave PL.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as a period of extended optional infinitive. J Speech Lang Hear Res 1995;38:850-863.

- 39) Leob DF, Leonard LB. Subject marking and verb morphology in normally developing and specifically language impaired children. *J Speech Lang Hear Res* 1991;34:340-346.
- 40) 이혜석. 언어발달평가를 위한 자료: 2-7세 어린이의 문법형태소를 중심으로. *글 모음집*.1995;2:107-130.
- 41) Windsor. J, Scott CM, Street CK. Verb and noun morphology in the spoken and written language of children with Language Learning Disabilities. *J Speech Lang Hear Res* 2000;43:1322-1336.
- 42) Rice ML, Wexler K. Toward tense as a clinical marker of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in English-speaking children. *J Speech Hear Res* 1996;39:1239-1257.
- 43) McGregor kk, Leonard LB. Subject Pronoun and Article omission in the speech of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A phonological interpretation. *J Speech Lang Hear Res* 1994;37:171-181.
- 44) Bortolini U, Caselli MC, Leonard LB. Grammatical deficit in Italian-speaking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 Speech Lang Hear Res* 1997;40:809-820.
- 45) 남기심. 국어의 격과 격조사에 대하여. *국어문법의 탐구 I*. 서울. 태학사; 1996; 65-92.
- 46) 정희정. '에'를 중심으로 본 토씨의 의미. *국어문법의 탐구 IV*. 서울. 태학사; 2001: 205-231.
- 47) 김지은. 국어에서 주어가 조사 없이 나타나는 환경에 대하여. *국어 문법의 탐구 IV*. 서울. 태학사; 2001: 233-249.
- 48) 배소영. 한국 아동의 언어발달: 진단의 일차적 자료. In: *한국언어병리학회. 언어치료전문요원 교육*. 서울: 한학사; 1995. p.18-32.
- 49) 이정민. Linguistic theory and language acquisition : Acquisition of topic and subject markers in Korea. In: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언어장애-청각장애의 다학문적 접근*. 서울:한학문화; 2000. p.76-94.

부록 1. 대상 아동의 생활연령, 수용 및 표현언어연령, 통합언어연령<sup>1</sup>, 평균발화길이<sup>2</sup> 분포

SLI그룹	생활연령	수용언어연령	표현언어연령	통합언어연령	평균발화길이
1	63	52	47	50	3.25
2	66	70	47	59	3.90
3	67	47	41	44	3.37
4	69	58	52	55	3.23
5	69	69	44	57	3.57
6	78	78	58	63	4.48
7	79	44	68	56	3.32
8	80	70	41	56	3.88
9	80	58	52	55	3.99
10	79	64	58	61	3.94

MLU그룹	생활연령	수용언어연령	표현언어연령	통합언어연령	평균발화길이
1	55	52	47	50	4.31
2	60	64	52	58	3.47
3	41	44	58	51	2.84
4	56	58	52	55	3.21
5	60	58	58	58	4.30
6	52	64	70	67	3.32
7	48	58	52	55	3.40
8	51	58	45	52	3.70
9	61	70	64	67	3.88
10	63	58	70	64	3.47



AGE그룹	생활연령	수용언어연령	표현언어연령	통합언어연령	평균발화길이
1	61	64	70	67	4.47
2	65	64	70	67	5.39
3	66	70	76	73	5.14
4	68	64	76	67	3.15
5	71	70	76	73	5.18
6	75	76	76	76	7.83
7	79	76	76	76	5.47
8	78	78	78	78	5.11
9	79	76	76	76	4.72
10	77	76	76	76	3.76

1 모든 연령은 개월 수.

2 단위는 낱말이고  $\pm 0.3$  내에서 모든 아동들이 짝을 이룸.

3 그 값은 평균 $\pm$ 표준편차로 나타냄.

## 부록 2. 사례 면담지

### 부모님과 아동을 교육하시는 선생님들께 !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자는 연세대학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대학원 석사 5학기 박정현입니다. 저는 우리 나라 아동들의 언어 발달에 대한 지표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연구의 하나로 만 5-6세 아동들의 조사사용에 대해 연구 하고자 합니다.

언어습득이 거의 완성되어 가는 연령인 만 5-6세 아동들이 어떤 종류의 조사를 사용하고, 또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조사 사용에 있어서 어떤 오류를 보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 아동들의 언어발달 형태를 추정할 수 있고, 따라서 아동 언어 연구에 대한 초석을 마련함으로써 언어장애아동과 정상아동들의 언어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서 바쁘시겠지만 부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 질문지의 내용과 아동의 녹화자료는 본 연구자의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며 기타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 ※다음의 설문지는 아동의 발달력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한 간단한 질문이므로 정확하게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동이름: \_\_\_\_\_
2. 생년월일: \_\_\_\_\_
3. 성별: 남 / 여
4. 청각 및 시각장애 유무 : 유 / 무 , 청각 / 시각
5. 출생력  
임신이나 출산 시에 특이한 사항이 있었나요? ( \_\_\_\_\_ )
6. 병력  
1) 신경 운동 장애와 관련된 질환을 앓은 적이 있나요? ( 예    아니오 )  
    있다면 병명이 무엇이었나요? ( \_\_\_\_\_ )

2) 정서 및 행동 장애와 관련해서 병원에서 진단 혹은 치료를 받은 적이 있  
나요? ( 예 아니오 )

있다면 진단명이 무엇이었나요? ( )

7.언어평가를 받거나 언어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나요? ( )

있다면 진단명은 무엇이며, 언제, 기간은 어느 정도 였나요?

( )

※상기 아동의 자료가 본 연구자의 연구를 위한 자료로 사용되는데 동의합니다.

보호자: (인)

이상의 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대학원 석사 과정 박 정 현

부록 3. 유도그림과제

【 --(으)로 】



철수가 가위로 종이를 자릅니다.



엄마가 색연필로 종이에 그림을 그립니다.



야구선수가 방망이로 야구공을 칩니다.



엄마가 청소기로 청소를 합니다.



엄마가 빗자루로 낙엽을 쓸니다.



철수가 수건으로 얼굴을 닦습니다.

【 -한테】



철수가 아빠한테 커피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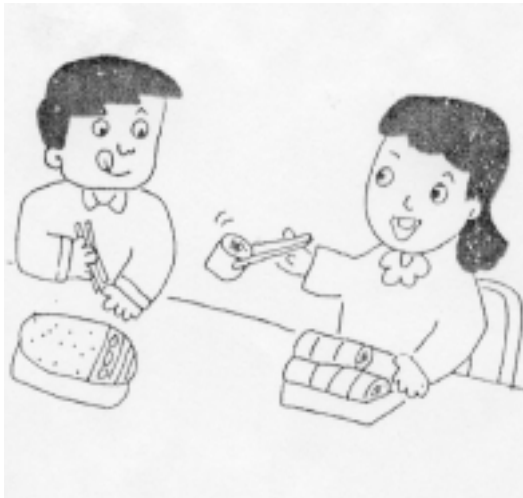
아이가 엄마한테 뽀뽀를 합니다.



아이가 강아지한테 뽀다귀를 줍니다.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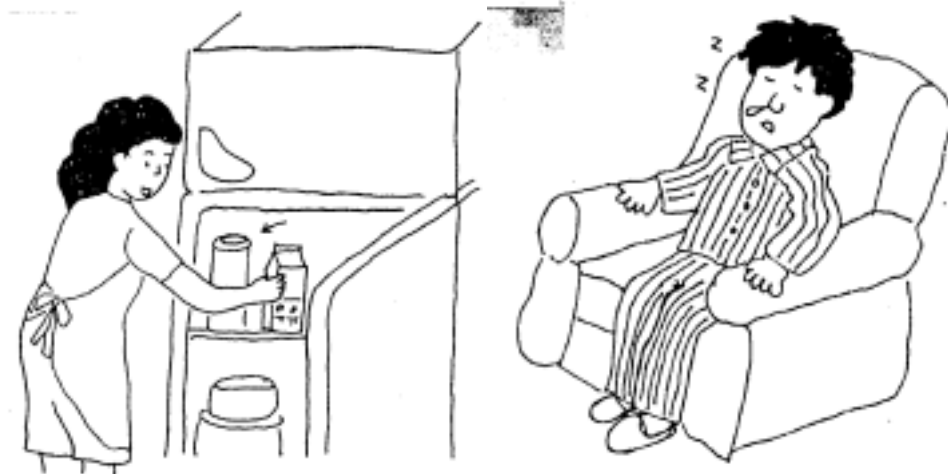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김밥을 줍니다.

【 -에서】



아이가 나무에서 사과를 따니다.

엄마가 가게에서 과일을 삽니다.



엄마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냅니다.

아빠가 소파에서 잠을 잡니다.

【 -에】



아이가 빵에 잼을 바릅니다.



아이가 컵에 우유를 따릅니다.



아이가 팔에 주사를 맞습니다.



아이가 휴지통(쓰레기통)에 휴지(쓰레기)를 버립니다.



부록 4. 자발적 발화에서 산출된 아동별 조사 사용빈도<sup>1</sup>

아동	SLI그룹	MLU그룹	AGE그룹
아동 1	89	87	191
아동 2	100	100	170
아동 3	106	114	210
아동 4	89	78	98
아동 5	106	126	96
아동 6	117	95	181
아동 7	72	132	157
아동 8	116	142	168
아동 9	106	162	98
아동 10	93	98	108

1 단위는 '회'이다

2 숫자는 산출 빈도를 표시함.

부록 5. 유도과제에서 산출된 아동별 조사 사용빈도<sup>1</sup>

아동	SLI그룹	MLU그룹	AGE그룹
아동 1	38 <sup>2</sup>	56	49
아동 2	24	39	51
아동 3	40	27	49
아동 4	32	24	50
아동 5	25	22	52
아동 6	27	46	58
아동 7	32	21	49
아동 8	37	65	52
아동 9	27	31	58

1 단위는 '회'이다

2 숫자는 산출 빈도를 표시함.

부록 6. 자발적 발화에서 산출된 아동별 조사 오류빈도<sup>1</sup>

아동	SLI그룹	MLU그룹	AGE그룹
아동 1	5 <sup>2</sup>	0	3
아동 2	4	1	0
아동 3	9	4	0
아동 4	1	0	0
아동 5	11	0	0
아동 6	20	0	0
아동 7	1	2	0
아동 8	4	0	0
아동 9	7	0	0
아동 10	6	1	0

1 단위는 '회'이다

2 숫자는 산출 빈도를 표시함.

부록 7. 유도과제에서 산출된 아동별 조사 오류빈도<sup>1</sup>

아동	SLI그룹	MLU그룹	AGE그룹
아동 1	23 <sup>2</sup>	17	10
아동 2	38	22	9
아동 3	20	31	13
아동 4	36	25	2
아동 5	39	13	4
아동 6	31	17	2
아동 7	35	33	13
아동 8	12	16	7
아동 9	26	28	6

1 단위는 '회'이다

2 숫자는 산출 빈도를 표시함.

부록 8. 자발적 발화에서의 대치 오류에 대한 오류빈도<sup>1</sup> 및 오류형태 분석

그 룹	오류유형							합 계		
	주격→ 주격	주격→ 부사격	목적격→ 주격	목적격→ 부사격	부사격→ 주격	부사격→ 부사격				
아동1	가→이	1	1	1	0	에→가	1	0	4	
아동2		0	0	을→은 를→는 →가 →이	3	0	0	0	3	
아동3		0	0	0	을→에	1	0	0	1	
아동4		0	0	0	0	0	0	0	0	
단 순 언 어 장 애 그 룹	아동5		0	0	을→이 →은	2	0	0	0	2
아동6		0	0	를→가	1	0	0	으로→에	1	2
아동7		0	가→에	1	0	0	0	0	1	
아동8		0	0	를→가	1	를→에서	1	0	0	2
아동9		0	0	을/를 →이 →은 →가	3	을→으로	1	0	0	4
아동10		0	가→한테	1	0	0	0	0	0	1
합계		1	3	11	3	1	1	1	20	

그 룩	오류유형						합 계				
	주격→ 주격	주격→ 부사격	목적격→ 주격	목적격→ 부사격	부사격→ 주격	부사격→ 부사격					
동 일 언 어 연 령 그 룹	아동1	0	0	0	0	0	0	0			
	아동2	0	0	0	를→로	1	0	0	1		
	아동3	0	0	0	을→에	3	0	0	3		
	아동4	0	0	0		0	0	0	0		
	아동5	0	0	0		0	0	0	0		
	아동6	0	0	0		0	0	0	0		
	아동7	0	0	0		0	에→가	1	0	1	
	아동8	0	0	0		0		0	0		
	아동9	0	0	0		0		0	0		
	아동10	0	0	0		0		0	1		
합계	0	0	0		4	1	0	4			
동 일 생 활 언 령 그 룹	아동1	0	0	0	를→로	2	0	0	2		
	아동2	0	0	0		0	에→가	1	에→에서	1	2
	아동3	0	0	0		0		0	0	0	
	아동4	0	0	0		0		0	0	0	
	아동5	0	0	0		0		0	0	0	
	아동6	가→는	1	0	0	0		0	0	1	
	아동7	0	0	0		0		0	0	0	
	아동8	0	0	0		0		0	에서→에	1	1
	아동9	0	0	0		0		0	0	0	
	아동10	0	0	0		0		0	0	0	
합계	1	0	0		2	1	2	2	6		

1 단위는 '회'이다

2 숫자는 산출 빈도를 표시함.

**부록 9. 자발적 발화에서의 기타 오류에 대한 오류빈도<sup>1</sup> 및 오류형태 분석**

그 룹	오류유형					합계		
	이중사용		첨가					
	주격+주격	주격	목적격	기타				
단 순 언 어 장 애 그 룹	아동1	0 <sup>2</sup>	0	0	0	0		
	아동2	0	0	0	0	0		
	아동3	0	0	0	0	0		
	아동4	0	더+가	1	0	0	1	
	아동5	은→이는	5	0	이렇게+를	1	0	6
	아동6	이→이가	10	이렇게+가	2	0	0	12
	아동7	이가	1	0	0	0	0	1
	아동8	이가	1	0	0	이쪽+이에는	1	2
	아동9	0	0	0	0	0	0	0
	아동10	0	0	0	0	바깥에+가	1	1
합계	17	3	1	2	23			
동 일 언 어 연 령 그 룹	아동1	0	0	0	0	0	0	
	아동2	0	0	0	0	0	0	
	아동3	0	0	0	0	0	0	
	아동4	이→이가	1	0	0	0	0	1
	아동5	0	0	0	0	0	0	0
	아동6	0	0	0	0	0	0	0
	아동7	0	0	0	0	누구+가	1	1
	아동8	0	0	0	0	0	0	0
	아동9	0	0	0	0	0	0	0
	아동10	0	0	0	0	0	0	0
합계	1	0	0	1	2			

1 단위는 '회'이다

2 숫자는 산출 빈도를 표시함.

**부록 10. 유도과제에서의 대치 오류에 대한 오류빈도<sup>1</sup> 및 오류형태 분석**

그 룹	오류유형							합 계				
	주격→ 목적격	주격→ 부사격	목적격→ 주격	목적격→ 부사격	부사격→ 주격	부사격→ 목적격	부사격→ 부사격					
아동1	0	0	0	0	한테→가	1	로→를	1	0	2		
아동2	가→를	1	가→한테	1	0	0	0	에→에서	1	3		
아동3	0	0	0	0	0	0	에→을	1	0	1		
아동4	0	0	를→는	1	0	한테→가	1	로→를	2	에→으로 →에서	2	6
아동5	0	0	을→ 야가	1	0	에→ (이)야가	2	0	0	3		
단 순 언 어 장 애 그 룹	아동6	0	0	를→가	1	0	0	0	에→에서	1	2	
아동7	0	가→한테	1	를→로 →에	1	0	0	0	한테→로 에→로 로→에	3	5	
아동8	0	0	를→가	1	를→ 에서	1	0	에→을	1	0	3	
아동9	0	0	을/를 →이 →은 →가	3	을→ 으로	1	0	로→를 에서→를	2	0	3	
아동1 0	0	0	0	0	0	0	0	0	0	0		
합계	1	2	81	2	4	7	7	7	28			



그 룹	오류유형					합 계
	주격→ 부사격	목적격→ 부사격	부사격→ 주격	부사격→ 목적격	부사격→부사 격	
아동1	0	0	0	에→에서	1	0 1
아동2	0	0	한테→를 으로→을	2	에서→에	1 0 3
동 아동3	가→한테	1	0	0	에→에서 에서→에	2 0 3
일 아동4	0	0	0	0	0	0
언 아동5	0	0	0	0	0	0 0
연 아동6	0	0	0	0	0	0 0
령 아동7	0	0	0	0	0	0 0
그 아동8	0	0	0	0	0	0 0
룹 아동9	0	0	0	0	0	0 0
아동10	0	0	0	0	0	0 0
합계	1	0	2	4	0	9
아동1	0	0	0	로→를	1	0 1
아동2	0	0	0	에→을	2	0 2
아동3	0	을→으로	1	0	에→을	1 1 3
동 아동4	0	0	0	0	한테→보구	1 1
일 아동5	0	0	0	에→을	1	0 1
생 아동6	0	0	0	로→을	1	0 1
활 아동7	0	0	한테→가	1	에→에서 에서→에	2 3
연 아동8	0	을→에	1	0	에서→를 로→를	2 0 3
령 아동9	0	를→에	1	0	으로→을	1 0 2
그 아동10	0	0	0	0	0	0 0
룹 합계	0	3	1	9	4	17

1 단위는 '회'이다      2 숫자는 산출 빈도를 표시함.

부록 11. 유도과제에서의 기타 오류빈도<sup>1</sup> 및 생략오류 분석

그 룹	오류유형					
	이중사용		생 략			
	주격+주격	주격	목적격	부사격		
단 순 언 어 장 애 그 룹	아동1	이가	1 <sup>2</sup>		를	에,에서,한테
	아동2		0	이/가	을/를	에,에서,한테,으로
	아동3		0	가	을/를	에,한테,으로
	아동4		0	이/가	을/를	에,에서,한테
	아동5	가→야가	2	가	을/를	에,(으)로
	아동6		0	이/가	을/를	에,에서,한테,(으)로
	아동7		0		을/를	에
	아동8		0	이/가	을/를	에서,한테,으로
	아동9	이가	1	이/가	을/를	에,에서,한테,으로
	아동10		0			
동 일 언 어 연 령 그 룹	아동1		0	이/가	을/를	에,에서,한테,으로
	아동2		0	이/가	을/를	한테,으로
	아동3		0	가	를	에,에서,한테,으로
	아동4		0	가		에서,한테
	아동5		0			
	아동6		0	이/가		한테
	아동7		0	이/가	을/를	에서,한테,(으)로
	아동8		0			
	아동9		0	이/가	을/를	에서,한테,(으)로
	아동10		0			

1 단위는 '회'이다

2 숫자는 산출 빈도를 표시함.

## **Abstract**

### **The Use of Case-particles of Korean-speaking Children with and without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Park Jung Hyun**

*Graduate Program in Speech Pathology,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Lee Ik Hw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use of grammatical morphemes of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SLI). According to many studies in various languages, children with SLI have difficulties in using grammatical morphemes. Thus, their difficulties function as clinical markers. In Korea, research data on children with SLI are insufficient, and tests to diagnose children with SLI have been not designed yet. Therefore, the study of grammatical morpheme use is needed for identifying children with SLI. In order to accomplish this objective, correct use and errors of Case-particles among representative grammatical morphemes in Korean are examined. The subjects are preschool children, 10 children with SLI, 10 age-equivalent children, and 10 Mean Length Utterance (MLU)-equivalent childre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frequency of correct use of Case-particles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SLI group and the age-equivalent group in both the spontaneous speech sample and the elicited speech tasks. The frequency of correct use in the SLI group is lower than that of the normal groups.

2. The frequency of errors of Case-particles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spontaneous speech samples and the elicited speech tasks. In spontaneous speech samples, the frequency of errors of the SLI group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normal groups. In the elicited speech task, the frequency of errors of the SLI group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age equivalent group. Moreover, the frequency of errors of the MLU equivalent group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age equivalent group.

3. The Frequency of error types show difference between the spontaneous speech samples and the elicited speech tasks. In the spontaneous speech tasks, omission is noticed only in the SLI group, whereas substitution is found in all the three groups. The frequency of substitution in the SLI group is higher than that of the normal groups. In the elicited speech task, the omission occurs in all three groups. The Frequency of omission in the SLI and MLU equivalent groups is higher than that of the age equivalent group. Substitution is found in all three groups. The SLI group shows a significantly higher frequency of substitution than the normal groups.

4. Error types in the subtypes of Case-particles in the SLI group are different between the spontaneous speech sample and the elicited speech tasks. In the spontaneous speech sample, the subjective Case-particles tend to be omitted. The objective Case-particles is substituted for the subjective Case-particles, and the adverbial Case-particles tend to be omitted as well. Uniquely, '-iga' for the subjective Case-particles is overused by the SLI group. In the elicited speech tasks, the adverbial Case-particles tend to be omitted and substituted for the objective Case-particles. The subjective

Case-particles is uniquely, but inappropriately substitute for '-yaga' and '-iga' by the SLI group.

These results show that Korean-speaking children with SLI have difficulty in using Case-particles. This suggests that the use of Case-particles can be helpful as a clinical marker to distinguish children with SLI from normal children.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subtypes of Case-particles depending on case marking and compare to use of each subtype between children with SLI and normal children. Also a further study is necessary to examine the use of verb endings.

---

**Key Words:**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grammatical morpheme, the frequency of Case-particles use, the frequency of Case-particles errors, child language disorders.